

정답과 해설

국어영역 | 문법편

정답과 해설



책 속의 가접 별책 (특허 제 0557442호)

- '정답과 해설'은 본책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유통 과정에서 분리될 수 있으나 파본이 아닌 정상제품입니다.
- 표지에 사용된 코팅액에는 항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비상교육

1 강 음운과 음운 체계

핵심 개념 적용하기

본문 10~11쪽

1 ③ 2 ⑤ 3 ③ 4 ⑤

1 음운의 특성 이해

비교 대상	분석	결론
물[水] - 불[火]	의미가 변별된다. 음운은 의미를 변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임.	㉠
㉡	의미가 변별된다.	'ㄷ'과 'ㄸ'은 서로 다른 음운이다.
㉢	의미가 변별된다.	'ㅌ'와 'ㄴ'은 서로 다른 음운이다.

[정답 해설] '물'과 '불'은 초성인 자음 'ㄹ'과 'ㅂ'에 의해 그 의미가 변별된다. 따라서 ㉠에는 "'ㄹ'과 'ㅂ'은 서로 다른 음운이다."라는 결론이 들어가야 한다. ㉡에서는 동일 환경에서 'ㄷ'과 'ㄸ'만으로 의미가 달라지는 말을 찾아야 한다. 제시된 단어 중 '달-딸'이 이에 해당한다. ㉢에서는 동일 환경에서 'ㅌ'와 'ㄴ'만으로 의미가 달라지는 말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강-공'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에서 '들-딸'은 초성과 중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ㄷ'과 'ㄸ'이 서로 다른 음운이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없다.
 ② '강-감'은 중성 'ㅇ'과 'ㄹ'이 달라 의미가 변별된다. ㉢에서 'ㅌ'와 'ㄴ'가 다르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⑤ '물'과 '불'의 의미 변별에서 중성인 'ㄹ'은 동일하게 쓰였으므로, 'ㄷ'과 'ㄸ'이 서로 다른 음운이라는 결론은 도출하기 어렵다.

지식 더하기

최소 대립쌍

동일 환경에서 둘 이상의 단어가 대립되어 의미 변화가 생길 때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짝으로, 같은 위치에 놓인 소리의 차이에 의해서만 구분되는 단어의 쌍을 말한다. 예) 목 / 목 / 먹 → 'ㄴ'과 'ㄷ'과 'ㄹ'이 의미를 변별함.

2 단모음 체계의 이해

보기

모음 중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한다. 단모음은 혀의 최고점의 위치, 곧 혀의 앞뒤와 혀의 높낮이, 입술 모양이 등글게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혀의 앞뒤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ㅍ	ㅡ	ㅓ
중모음	ㅓ	ㅗ	ㅕ	ㅛ
저모음	ㅗ		ㅑ	

[정답 해설] '으레'에는 'ㅡ'와 'ㄹ' 두 개의 단모음이 포함되어 있는데, 'ㄹ'은 입천장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이 맞지만 'ㅡ'는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이다. 따라서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무죄'에는 'ㄴ'과 'ㅗ' 두 개의 단모음이 포함되어 있는데, 'ㄴ'과 'ㅗ' 모두 발음할 때 입술을 등글게 오므리는 원순 모음이다.
 ② '서로'에는 'ㄷ'과 'ㅗ' 두 개의 단모음이 포함되어 있는데, 'ㄷ'과 'ㅗ' 모두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이다.
 ③ '막내'에는 'ㅌ'와 'ㅓ' 두 개의 단모음이 포함되어 있는데, 'ㅌ'와 'ㅓ' 모두 발음할 때 입이 크게 열려서 혀의 위치가 낮은 저모음이다.
 ④ '위기'에는 'ㄱ'과 'ㅣ' 두 개의 단모음이 포함되어 있는데, 'ㄱ'과 'ㅣ' 모두 발음할 때 입이 조금 열려서 혀의 위치가 높은 고모음이다.

3 국어와 영어의 음운 체계 이해

영어의 음운	한국어의 음운
/k/	/ㄱ/, /ㅋ/, /ㅋ/ key[ki:] → [기] / book[buk] → [북]
/r/, /l/	/ㄹ/ [re]ft → [리프트] / rabbi[ræbi] → [래빗]
/m/	/ㅁ/ moon[mu:n] → [문]
/b/	/ㅂ/ bag[bæg] → [백]
/f/, /p/	/ㅍ/ food[fu:d] → [푸드] / print[print] → [프린트]

[정답 해설] 주어진 자료에서 한국어 사용자가 /ㅁ/과 /ㅂ/을 별개의 음운으로 인식하듯이, 영어 사용자도 이에 대응하는 /m/과 /b/를 각기 다른 음운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물]과 [불]의 발음을 한국어 사용자와 영어 사용자 모두 별개의 소리로 인식한다고 추론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한국어의 /ㄹ/ 소리는 영어에서는 모음 앞에서 /r/로, 자음 앞이나 음절 말에서 /l/로 실현된다. 따라서 한국어 사용자는 /ㄹ/ 소리를 하나로 인식하지만 영어 사용자는 [다리]의 /ㄹ/은 /r/로, [달]의 /ㄹ/은 /l/로 다르게 인식한다.
 ② 영어의 음운 /f/, /p/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음운은 /ㅍ/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어 사용자들은 영어의 /f/와 /p/를 동일한 /ㅍ/ 소리로 인식하기 쉽다.
 ④ 제시된 표에서 한국어의 음운 /ㄱ/, /ㅋ/, /ㅋ/에 대응하는 영어의 음운은 /k/ 하나뿐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 사용자는 /ㄱ/, /ㅋ/, /ㅋ/을 모두 다른 음운으로 인식하지만, 영어 사용자는 이를 /k/ 하나의 음운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음운은 사람들의 관념에 따라 그 수가 달라질 수 있고, 각 언어마다 다른 음운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이 대화할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

4 비분절 음운의 특징 파악

보기

비분절 음운은 분절 음운에 얹혀 나타나는 소리의 단위로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 억양과 장단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억양이란 소리의 상대적인 높이를 변화게 하는 것으로 문장의 끝을 높이는나, 낮추는나, 평탄하게 하느냐에 따라 의미를 구별한다. 또한 장단은 소리의 길고 짧음을 의미하는데 장음(長音)은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 나타나며, 본래 장음으로 발음되던 단어도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짧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해설] 국어의 비분절 음운은 소리의 고저, 길이, 세기와 같이 분절음에 얹혀서 동시적으로 수반되어 의미 분화에 참여하는 요소를 의미한다. 즉 소리의 길이나 억양처럼 의미 변별의 기능은 있지만, 소리마디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누어지지 않는다. <보기>의 마지막 문장에서 본래 장음으로 발음되던 단어도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짧게 발음된다고 하였으므로 긴소리로 발음되는 ‘말:[言]’이 ‘존대’와 결합하여 ‘존댓말’이 되면 ‘말:[言]’은 짧은 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네가 한 말이 무슨 뜻이야?”와 같은 문장에서는 장음으로 발음되는 단어(말)도 있고, 화자의 의도에 따라 문말의 끝을 높이거나 낮추는 등 억양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듯 소리의 장단과 억양은 동시에 실현될 수 있다.
- ② 자음과 모음은 분절 음운에 해당한다. 비분절 음운에는 소리의 장단, 문장의 어조 곡선을 나타내는 억양 등이 있다.
- ③ 소리의 장단은 모음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밤[葉]’을 발음할 때는 중성 모음 ‘ㅏ’를 길게 발음해야 한다.
- ④ “지금 밥 먹어.”를 문장의 끝을 올리는 억양으로 말하면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의문의 의미를 담을 수 있다. 명령의 의미를 담으려면 문장의 끝을 평탄하게 말해야 한다.

지식 더하기

표준 발음법 제3장 : 음의 길이

제6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눈보라[눈:보라] → 첫눈[첫:눈], 말씨[말:씨] → 참말[참:말], 밤나무[밤:나무] → 쌍둥밤[쌍:둥밤]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 **㉡** 반신반의[반:신바:늑 / 반:신바:늑]

2

음운의 변동

핵심 개념 적용하기

본문 16~17쪽

1 ② 2 ⑤ 3 ② 4 ② 5 ④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해

보기

- ㉠ 숲[숲] 속의 호박은 잘 자란다. 숲 → [숲](음절의 끝소리 규칙)
- ㉡ 숲이[수피] 깊어야 도깨비가 나온다. → 연음 현상
- ㉢ 숲 아래[수바래] 아담한 초가집이 한 채 있다.
숲 → [숲](음절의 끝소리 규칙), 아래 → [바래](연음 현상)
- ㉣ 호랑이도 제 ㉢ 숲만[숨만] 떠나면 두리번거린다.
숲 → [숲](음절의 끝소리 규칙), 숨만 → [숨만](비음화)

[정답 해설]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앞말의 끝소리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연음된다. ㉠의 ‘숲이[수피]’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연음되는데, 이것은 ‘숲’의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인 조사 ‘이’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 ① ㉠은 어말에 위치한 ‘ㅍ’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ㅂ’으로 바꾸어 [숨]으로 발음해야 한다.
- ③ ㉢은 ‘숲’과 ‘아래’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수바래]로 발음된다. 이를 통해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이어질 경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 ④ ‘꽃 위[꼬위]’와 ‘웃 안[오단]’ 역시 ㉢과 마찬가지로 두 단어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인 ‘위’와 ‘안’이 이어진 것이다.
- ⑤ ㉣의 ‘숨만[숨만]’은 자음으로 시작된 조사가 이어진 경우로, ‘숨’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숨만]이 된다. 이렇게 바뀐 음절의 끝소리 ‘ㅂ’은 다시 ‘ㅁ’을 만나 동화(비음화)되어 최종적으로 [숨만]으로 발음된다.

2 자음 동화의 이해

보기

자음 동화란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닮아서 그와 같은 소리나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 또는 서로 동화되어 두 소리가 같거나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자음 동화에는 받침 ‘ㄱ, ㄷ, ㅂ’이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바뀌는 **㉠ 비음화**와 ‘ㄴ’이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되는 **㉡ 유음화**가 있다.

또한 **동화의 변화 방향**에 따라 두 자음 중 뒤의 소리가 앞의 소리를 닮는 **㉢ 순행 동화**, 앞의 소리가 뒤의 소리를 닮는 **㉣ 역행 동화**, 앞과 뒤의 소리가 모두 바뀌어 서로 닮는 **㉤ 상호 동화**로 나눌 수 있다.

[정답 해설] '국민'은 받침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동화되어, [궁민]으로 발음된다(비음화). 또한 앞의 소리가 변화하였으므로 역행 동화가 일어난 예이다.

오답 풀이

- ① '법물'은 받침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법물]로 발음된다. → 비음화(㉠), 역행 동화(㉡)
- ② '덧문'은 받침 'ㅅ'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영향으로 'ㄷ'으로 바뀐 뒤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던문]으로 발음된다. → 비음화(㉠), 역행 동화(㉡)
- ③ '달남'은 비음 'ㄴ'이 앞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달림]으로 발음된다. → 유음화(㉢), 순행 동화(㉣)
- ④ '근력'은 비음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글력]으로 발음된다. → 유음화(㉢), 역행 동화(㉡)

3 축약 현상의 이해

보기 1

- ㄱ. 놓다, 앉히다
[노타], [안치다] →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 : 발음의 변화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음.
- ㄴ. 쓰-+-이어 → '쓰여' 또는 '씩어'
'여', '의' → 모음 축약 : 발음의 변화가 표기에 반영됨.

[정답 해설] ㄱ은 'ㄱ, ㄷ, ㅂ, ㅅ'이 'ㅎ'과 만나 'ㅋ, ㅌ, ㅍ, ㅈ'이 되는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의 예로 발음 변화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ㄴ은 어간의 끝모음 'ㄷ' 뒤에 접사 '-이-'와 어미 '-어'가 결합하고 있다. 접사 '-이-'가 앞 어간 끝모음과 만나 '의'가 되거나 접사 '-이-'와 어미 '-어'가 '여'로 줄어드는 경우 모두 모음 축약의 예에 해당한다. 모음 축약은 '쓰여', '씩어'와 같이 발음 변화가 표기에 반영된다.

오답 풀이

- ① ㄱ은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 ㄴ은 모음 축약으로 둘 다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되는 축약 현상에 해당한다.
- ③ '말형[마형]', '잡화[자파]' 역시 각각 'ㄷ'과 'ㅂ'이 'ㅎ'을 만나 축약되어 'ㅌ'과 'ㅍ'으로 바뀌는 자음 축약의 예이다.
- ④ '고-+-이-+-어' 역시 ㄴ과 같이 '고-'와 '-이-'를 축약한 '괴어' 또는 '-이-'와 '-어'를 축약한 '고여'로 쓸 수 있다.
- ⑤ '쓰여'의 '여'와 '씩어'의 '씩'은 두 모음이 하나로 줄어들면서 이중 모음으로 변화한 예이다.

4 음운 변동 현상의 종합적 이해

보기 1

- ㄱ. 너보다 못하[못한] 사람이 세상에는 많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거센소리되기
- ㄴ. 그는 피붙이[피부치] 하나 없는 외로운 몸이다.
구개음화
- ㄷ. 늦여름[늦너름] 밤의 바람은 낮의 더운 열기를 식혀 줄 만큼 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
원했다.
- ㄹ. 그녀는 새 신발을 신고[신:꼬] 데이트에 나갔다.
된소리되기(경음화)
- ㅁ. 차 내부에는 물이 줄줄 나오는 작은 부엌도[부억도] 있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경음화)

보기 2

- ㉠ 음절의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가지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ㄷ, ㅌ'이 'ㅌ, ㅊ'으로 바뀌는 현상 → 구개음화
- ㉢ 예사소리 'ㄱ, ㄷ, ㅂ, ㅅ'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ㅋ, ㅌ, ㅍ, ㅈ'으로 축약되는 현상 → 거센소리되기
- ㉣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음절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 음절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할 때 'ㄴ' 음이 첨가되는 현상
→ 'ㄴ' 첨가
- ㉤ 예사소리였던 것이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 → 된소리되기(경음화)

[정답 해설] ㄱ의 '못한'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못한]과 같이 첫음절의 끝소리 'ㅅ'이 대표음 'ㄷ'으로 발음되고, 다시 'ㄷ'과 'ㅎ'이 만나 [모탄]으로 축약(㉢)되어 발음된다.

ㄴ의 '피붙이[피부치]'는 끝소리 'ㅌ'이 형식 형태소인 접사 '-이'와 만나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ㄷ은 파생어인 '늦여름'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첫음절의 끝소리 'ㅅ'이 대표음 'ㄷ'으로 발음되어 [늦여름]이 된 후, '여'에서 'ㄴ' 음이 첨가(㉣)되어 [늦너름]으로 발음되다가 편의를 위해 [늦너름]으로 비음화가 일어난다.

ㄹ에서 '신고'는 어간의 끝소리 'ㄴ'과 어미의 첫소리 'ㄱ'이 만나, 예사소리였던 'ㄱ'이 된소리인 'ㄴ'으로 바뀌어 [신:꼬]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ㅁ의 '부엌도'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부엌'의 받침 'ㄷ'이 대표음 'ㄱ'으로 발음되어 [부억도]가 된 다음, 뒤에 이어지는 예사소리 'ㄷ'이 앞의 'ㄱ'과 만나 된소리로 바뀌어 [부억도]로 발음된다(㉤).

5 음운 변동의 이해

보기 1

음운 변동은 음운의 원래 모습대로 발음되지 않고,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음운 변동은 그 결과에 따라 크게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원래 있던 음이 없어지는 ① 탈락,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첨가,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로 되는 축약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정답 해설] ④의 '씨서'는 용언의 어간 '쓰-'가 어미 '-어서'와 만나 'ㅌ'가 탈락한 경우이다. 'ㅌ' 탈락 현상은 일반적으로 끝소리로 모음 'ㅌ'를 가진 용언의 어간이 '-아/어', '-아서/어서' 등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때 일어나는 규칙적인 현상이다.

오답 풀이

- ① 되-+-어 → 돼(축약)
- ② 뜨-+-이-+-다 → 땀다(축약)
- ③ 완성+되-+-었-+-다 → 완성됐다(축약)
- ⑤ 맞추-+-어 → 맞춰(축약)

핵심 개념 적용하기

본문 22~23쪽

1 ⑤ 2 ③ 3 ⑤ 4 ⑤

1 단어의 형성 이해

보기

단어의 형성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 하고, 어근에 결합하여 뜻을 더하거나 제한하는 주변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접사에는 어근의 앞에 붙는 접두사와 어근의 뒤에 붙는 접미사가 있다. 또한 어근의 뜻을 한정하는 한정적 접사와 품사를 바꾸는 장배적 접사가 있다.

[정답 해설] '코웃음'은 '코'소리를 내거나 코끝으로 가볍게 웃는 비난조의 웃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코'는 어근의 뜻을 한정하는 접사가 아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즉 어근이다. '-음'의 경우 동사 '웃다'의 어간 '웃-'에 붙어 동사를 명사로 만들고 있으므로 품사를 바꿔 주는 접미사이다.

오답 풀이

- ① '기침'은 '기'도의 점막이 자극을 받아 갑자기 숨소리를 터트려 내는 일'을 의미하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하나의 형태소이다. 따라서 실질적 의미를 가진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 ② '울보'는 어근 '울-'과 '그러한 행위를 특성으로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해 주는 접미사 '-보'가 결합된 단어이다. 동사 '울다'가 접미사 '-보'와 결합하여 '울보'라는 명사가 되었으므로 '-보'는 어근의 품사를 바꿔 주는 접미사로 볼 수 있다.
- ③ '새-'는 '매우 질고 선명하게'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빨갈다'에 '새-'를 더한 '새빨갈다'는 '매우 빨갈다'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새-'는 어근의 뜻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 ④ '뒹-'은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근인데, 여기에 '-개'가 결합해서 '뒹는 물건'이라는 의미가 되었다. 따라서 '-개'는 '뒹-'에 붙어 의미를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개'로 인해 동사 '뒹-'의 품사가 명사가 되었기 때문에 품사를 바꾸는 접미사로 볼 수 있다.

2 복합어의 종류 및 파생어의 분류 이해

보기

복합어는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복합어를 ㉠ 합성어라 하고, 어근의 앞이나 뒤에 파생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복합어를 파생어라고 한다. 파생어는 ㉡ 어근의 앞에 파생 접사가 붙은 파생어와 ㉢ 어근의 뒤에 파생 접사가 붙은 파생어로 나눌 수 있다. → 파생어의 분류 기준: 접사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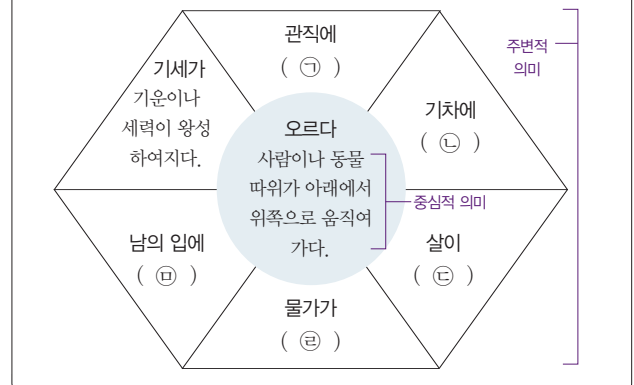
[정답 해설] '빛나다'는 어근 '빛'에 어근 '나다'가 결합한 합성어로, ㉠에 해당한다. '치숫다'는 접두사 '치-'에 어근 '숫-'이 결합한 파생어로 ㉡의 예로 적절하다. '잡히다'는 어근 '잡-'에 접미사 '-히-'가 결합한 파생어로 ㉢의 예가 된다.

오답 풀이

- ① '꽃사랑'은 어근 '사랑'에 접두사 '꽃-'이 결합한 단어이므로 ㉡의 예가 된다. '짓누르다'는 어근 '누르다'에 접두사 '짓-'이 결합한 단어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깊이'는 어근 '깊-'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 ② '앞뒤'는 어근 '앞'과 어근 '뒤'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밀치다'는 어근 '밀-'에 접미사 '-치-'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의 예이다. '게으름'은 어근 '게으르-'에 접미사 '-ㅁ'이 결합한 단어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 ④ '보슬비'는 어근 '보슬(보슬)'과 어근 '비'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뜬소문'에서 '뜬'은 '뜨다'의 어간 '뜨-'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형태이므로 '뜬'은 어근이다. '소문' 역시 어근이므로 용언과 명사가 결합한 '뜬소문'은 ㉠의 예가 된다. '요술쟁이'는 어근 '요술'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 ⑤ '툼질'은 어근 '툼'에 접미사 '-질'이 결합한 단어이므로 ㉢의 예가 된다. '맨몸'은 접두사 '맨-'에 어근 '몸'이 결합한 단어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걱정스럽다'는 어근 '걱정'에 접미사 '-스럽-'이 결합한 단어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3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의 적용

보기



[정답 해설] 다의어의 중심적 의미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쓰이는 주변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남의 입에 오르다'에서 '오르다'는 '널리 알려져서 유명해지다.'의 의미가 아닌 '남의 이야기거리가 되다.'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예로 '구설수에 오르다, 정치인이 화제에 오르다' 등이 있다.

오답 풀이

- ① '오르다' 앞에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어휘가 올 때는 '지위나 신분 따위를 얻게 되다.'의 의미를 갖는다. 예로는 '관직/왕위/벼슬길/양반 신분에 오르다.' 등이 있다.
- ② '오르다'가 자동차나 기차와 같은 탈것 뒤에 붙을 때는 '탈것에 타다.'의 의미를 갖는다. 예로는 '기차/버스/배/비행기에 오르다.' 등이 있다.
- ③ '오르다'가 '몸 따위에 살이 많아지다.'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는 주로 '얼굴에 살이 오르다./꽃게가 제철이라 살이 올랐다.'와 같이 사용된다.
- ④ '물가가 오르다.'의 '오르다'는 '값이나 수치, 온도, 성적 따위가 이전보다 많아지거나 높아지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로는 '등록금/월급/체온/월급/성적이 오르다.' 등이 있다.

4 반의 관계의 특성 이해

보기

ㄱ. 남자 : 여자 / 살다 : 죽다 - 상호 배타적으로 나누어짐.

ㄴ. 남 : 북 / 가다 : 오다 - 방향상의 대립 관계를 나타냄.

ㄷ. 고유어 : 외래어 / 고유어 : 한자어 - 한 단어에 여러 개의 단어가 대립함을 보여 줌.

	의미	반의어
서다 다의어	일어나다	않다
	멈추다	가다
	(체면 등이) 유지되다	깨이다

[정답해설] ㄱ~ㄷ은 반의 관계에 따른 반의어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반의어는 두 단어 사이에 공통적인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 한 개의 요소가 달라질 때 성립된다. 따라서 공통적인 의미 요소만으로도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⑤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가령 ㄱ의 '남자'와 '여자'의 경우 두 단어는 모두 [+생물], [+동물], [+인간]이라는 공통적인 의미 요소를 가지면서 [성별]의 의미 요소 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반의 관계가 성립된다.

오답 풀이

- ㄱ의 '남자'와 '여자'는 [사람]이라는 영역에, '살다'와 '죽다'는 [삶]이라는 영역에 포함된다. 이러한 공통의 영역 안에서 '남자'와 '여자', '살다'와 '죽다'는 중간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상호 배타적인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보 반의어로 볼 수 있다.
- ㄴ의 '남'과 '북', '가다'와 '오다'는 방향상에서 대립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의미상 대칭을 이루는 방향 반의어로 볼 수 있다.
- ㄷ의 '고유어'는 '외래어', '한자어'와 반의 관계에 있다. 이를 통해서 한 단어에 여러 개의 단어가 대립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ㄷ의 '서다'는 다의어로, 각 의미에 따라 반의어가 달라지고 있다.

4 국어의 품사 (1)

핵심 개념 적용하기

본문 28~29쪽

1 ⑤ 2 ① 3 ④ 4 ③

1 품사의 분류 이해

보기

■ 예문

• 철수는 학생이었다.

• 철수는 새 옷을 많이 팔았다.

■ 품사 분류 기준

[기준 1] 문장 속의 일정한 자리에서 단어가 보이는 형태에 따라 :
가변어와 불변어
어미의 결합 유무

[기준 2] 단어가 문장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 체언, 용언, 수식
언, 관계언, 독립언

[기준 3] 단어가 지닌 의미에 따라 :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
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국어는 9품사로 분류됨. 체언 수식언 용언 관계언 독립언

[정답해설] '철수는 학생이었다.'에서 '이었다'는 '이-'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과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형태이다. 어미가 결합하여 단어의 형태가 변화하는 가변어이기는 하지만 체언 뒤에 붙어서 '학생'을 서술어로 만들기 때문에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임을 알 수 있다. '철수는 새 옷을 많이 팔았다.'에서 '팔았다'의 경우 동작을 나타내면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과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동사이다.

오답 풀이

- ① '는'은 두 문장에서 모두 명사 '철수' 뒤에 붙으며, 형태의 변화가 없으므로 불변어이다.
- ② '새'는 뒤에 오는 '옷'을 꾸며 주고 있고, '많이'는 뒤에 오는 '팔았다'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수식언이다.
- ③ '철수는 학생이었다.'에서 '철수'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 '철수는 새 옷을 많이 팔았다.'에서 '철수'와 '옷'은 각각 주어와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철수'와 '학생', '옷'은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므로 명사이다.

2 체언의 특성 파악

보기

ㄱ. 철수가 반송한 것이 집으로 되돌아왔다. → 명사
의존 명사 자립 명사

ㄴ. 그것이 여기로 되돌아왔다. → 대명사

ㄷ. 둘이 힘을 합치면 하나를 이길 수 있다. → 수사

[정답해설] ㄱ에서 관형어 '반송한'을 삭제해 보면, '철수가 것이 집으로 되돌아왔다.'로 비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체언 중에서도 '것'과 같은 의존 명사는 반드시 앞에 꾸며 주는 말이 있어야 쓰일 수 있는 것이므로, ①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② ㄴ의 '그것'과 '여기'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로,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고 있기 때문에 대명사이다. 따라서 ㄴ을 통해 체언 중에는 어떤 대상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유추한 것은 적절하다.
- ③ ㄷ에서 '둘', '하나'는 모두 수를 나타내는 단어로, 조사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수사이다. 또한 '둘'은 주어, '하나'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언으로 볼 수 있다.
- ④ ㄱ의 밀줄 친 단어는 명사이고 ㄴ의 밀줄 친 단어는 대명사이다. ㄷ의 밀줄 친 단어는 수사이다. 따라서 ㄱ~ㄷ의 밀줄 친 단어는 모두 체언이다. 이 밀줄 친 단어들은 조사 '가'나 '이', '(으)로', '를'과 결합되어 있으므로 체언이 문장에서 조사와 결합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⑤ ㄱ에서 '철수', '것', '집'을 생략하면 비문이 되고, ㄴ에서 '그것'과 '여기'를 생략하면 비문이 된다. 또한 ㄷ에서는 '둘'이나 '하나'를 생략하면 비문이 된다. 따라서 체언이 문장에서 중심 성분임을 알 수 있다.

3 관형사의 의미상 분류 이해

보기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주로 명사)을 꾸며 주는 단어를 관형사라고 한다.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하지 않으며, 형태가 변화하지도 않는다. 관형사는 의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ㄱ.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관형사
예 이, 그, 이런, 그런
- ㄴ.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 주는 성상 관형사
예 새, 현, 맨, 옛
- ㄷ. 수량이나 순서라는 수 개념을 나타내는 수 관형사
예 첫째, 제일, 여러, 몇

정답 해설 수사와 수 관형사는 수량이나 순서의 수 개념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단어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 좋다. 즉 수사는 체언이기 때문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고, 관형사는 조사가 결합할 수 없다. ④의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 다섯이 모였다.'에서 '다섯'은 조사 '이'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관형사가 아니라 수사이다.

오답 풀이

- ① '그 사람은'에서 '그'는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사람들 중에서 특정 사람을 가리키며, 뒤에 오는 명사 '사람'을 꾸며 주고 있다. 따라서 '그'는 지시 관형사이다.
- ② '다른 사람들은'에서 '다른'은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뒤에 오는 명사 '사람들'을 꾸며 주면서 '당장 문제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다른'은 지시 관형사이다.
- ③ '현 구두'에서 '현'은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뒤에 오는 명사 '구두'의 상태나 성질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성상 관형사이다.
- ⑤ '여러 그루'에서 '여러'는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수량을 나타내면서 뒤에 오는 명사 '그루'를 꾸며 주고 있다. 따라서 수 관형사이다.

4 부사의 특성 파악

보기

- ㄱ. 올여름에는 비가 참 많이 내렸다. 성분 부사
- ㄴ. 그녀는 밥을 못 먹고 집을 나왔다. 성분 부사
- ㄷ. 다행히 상대의 공격을 막아 내었다. 문장 부사
- ㄹ. 그는 정치 및 경제 분야에 뛰어났다. 문장 부사
- ㅁ.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오지 않았다. 문장 부사

정답 해설 부사는 문장의 한 성분만을 수식하는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가에 따라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로 구분할 수 있다. ㄷ의 '다행히'는 뒤에 이어지는 문장 전체인 '상대의~막아 내었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즉 ㄷ은 '상대의 공격을 막아낸 것이 다행이다.'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다행히'를 통해 부사가 문장 전체를 꾸밀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ㄷ을 통해서만 체언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부사가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일부 체언 앞에서 그 체언에 특별한 뜻을 더하여 주는 단어에는 '인격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의 '바로'와 같은 예가 있다.

오답 풀이

- ① ㄱ에서 '참'은 뒤에 오는 부사 '많이'를 꾸며 주는 부사이고, '많이'는 뒤에 오는 용언 '내렸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따라서 ㄱ을 통해 두 개 이상의 부사가 나란히 놓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ㄴ에서 '못'은 뒤에 오는 용언 '먹고'에 부정의 의미를 더해 주는 부정 부사이다. 그러므로 ㄴ을 통해 부사가 용언을 수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ㄹ은 '그는 정치 분야에 뛰어났다.'와 '그는 경제 분야에 뛰어났다.'의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및'은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로, 이 문장에서는 '정치'와 '경제' 두 단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ㄹ을 통해 부사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ㅁ의 두 문장은 '그러나'를 통해서 앞 문장의 내용과 뒤 문장의 내용이 상반되게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ㅁ의 접속 부사 '그러나'를 통해 부사가 문장과 문장을 이어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식 더하기

문장 부사

- ㄱ. 과연, 실로, 모름지기, 물론, 정말 ...
예 과연 그 아이는 수학 실력이 뛰어나다.
- ㄴ. 설마, 아마, 만일, 설령 ...
예 설마 그런 곳에 보물이 있겠느냐?
- ㄷ. 제발, 아무쪼록, 부디 ...
예 아무쪼록 건강했으면 좋겠다.

ㄱ~ㄷ의 문장 부사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준다. ㄱ은 주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 틀림없다든지 서술 내용을 단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사용된다. ㄴ은 화자의 믿음이 의심스럽다든지 단정을 회피할 필요가 있을 때 쓰이며, ㄷ은 화자의 희망을 표시하거나 가상적 조건 아래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사용된다.

핵심 개념 적용하기

본문 34~35쪽

1 ③ 2 ④ 3 ⑤ 4 ④ 5 ④

1 용언의 특징 이해

보기 1

- ㄱ. 철수가 영희에게 꽃다발을 주었다.
동사(주-+-았-+-다)
 ㄴ. 영희가 받은 꽃다발이 예쁘다.
동사(받-+-은) 형용사(예쁘-+-다)
 ㄷ. 영희는 초등학교 때가 정말 예뻐졌다.
형용사(예쁘-+-었-+-지)
 ㄹ. 철수가 집으로 빠르게 갔다.
형용사(빠르-+-게) 동사(가-+-았-+-다)

[정답해설] ㄱ의 '주었다'는 어간 '주-'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과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형태이다. ㄴ의 '예쁘다'는 어간 '예쁘-'에 부사형 전성 어미 '-게'가 결합한 형태이고, '갔다'는 어간 '가-'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과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형태이다. 그러므로 ㄱ과 ㄴ의 예를 통해서 용언에 격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ㄱ의 '주었다'와 ㄴ의 '받은'은 동작을 나타내고 있으며, ㄴ의 '예쁘다'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ㄱ과 ㄴ을 통해서 용언에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ㄱ의 '주었다'는 '철수'의 동작을 서술하고 있고, ㄴ의 '예뻐졌다'는 '영희'의 상태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용언은 서술의 기능을 함을 알 수 있다.
 ④ ㄴ의 '받은'은 어간 '받-'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이 결합한 것이고, '예쁘다'는 어간 '예쁘-'에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하고 있다. ㄴ의 '예뻐졌다'는 어간 '예쁘-'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과 종결 어미 '-지'가 결합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용언에 어미가 결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ㄴ의 '받은'은 어간 '받-'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은'이 결합한 형태로, 뒤에 있는 체언 '꽃다발'을 꾸며 주고 있다. ㄹ의 '빠르게'는 어간 '빠르-'에 부사형 전성 어미 '-게'가 붙은 형태로, 뒤에 있는 용언 '갔다'를 꾸며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용언은 뒤에 오는 말을 꾸며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용언의 활용 양상 이해

보기 1

용언의 어간에 어미들이 결합하는 것을 **용언의 활용**이라고 한다. 용언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변하지 않거나, 어간의 마지막 음절에서 모음 'ㄹ'이 탈락하는 현상을 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변하는 것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보기 2

- ① 먹다 : 먹어 / 먹었다 / 먹고 / 먹니
→ 어간과 어미의 형태 변화가 없음(규칙 활용).
 ② 치르다 : 치러 / 치렀다 / 치르고 / 치르니
→ 어간의 끝음절 'ㄹ' 탈락(규칙 활용).
 ③ 이르다[루] : 일러 / 일렀다 / 이르고 / 이르니
→ '르'가 모음 어미 앞에서 'ㄹ'로 변함(불규칙, 어간 변화).
 ④ 이르다[로] : 이르러 / 이르렀다 / 이르고 / 이르니
→ 어간이 '로'로 끝나는 용언에 결합한 어미 '-어'가 '-러'로 변함(리 불규칙, 어미 변화).

[정답해설] ㉔의 '이르다[루]'에 어미 '-어'나 '-었-'이 결합할 때, '이르-'의 모음 'ㄹ'이 탈락하면서 '르'가 덧생기고, 이 '르'가 어미 '-어'와 '-었-'에 연음되어 '-러', '-렀-'의 형태가 되었다. 따라서 ㉔은 어간의 형태만 변화된 불규칙 활용이다.

오답 풀이

- ① ㉓의 '먹고, 먹니', ㉔의 '치르고, 치르니', ㉕의 '이르고, 이르니', ㉖의 '이르고, 이르니'는 어간에 어미 '-고', '-니'가 결합된 형태이다. 어미 '-고'와 '-니'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인데, 여기에 결합한 어간의 형태는 변화하지 않았다.
 ② ㉓의 '먹어'는 '먹-+-어', '먹었다'는 '먹-+-었-+-다', '먹고'는 '먹-+-고', '먹니'는 '먹-+-니'로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먹다'가 활용할 때에는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㉔의 '치러'는 '치르-+-어', '치렀다'는 '치르-+-었-+-다'로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치러'와 '치렀다'는 어간 '치르-'에서 'ㄹ'만 탈락한 규칙 활용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㉕의 '일러'는 '이르-+-어', '일렀다'는 '이르-+-었-+-다'로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으므로, 어간의 모음 'ㄹ'이 탈락하고 '르'가 덧생긴 불규칙 활용임을 알 수 있다.
 ⑤ ㉕의 '이르다[루]'와 ㉖의 '이르다[로]'는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이다. ㉕의 '이르다'는 '일러, 일렀다'에서 나타나듯이 'ㄹ'이 탈락하고 '르'가 덧생기는 '르' 불규칙 활용을 한다. 하지만 ㉖의 '이르다'는 '이르러, 이르렀다'에서와 같이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 '러' 불규칙 활용을 한다.

3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구분

보기 1

용언에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있다. 본용언이 실질적이고 중심 자립성의 유무에 따른 용언의 종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보조 용언은 본용언 뒤에 붙어서 의존적이며, 생략할 수 있는 '시도', '상태', '완료' 등과 같은 의미를 본용언에 더해 준다.

[정답해설] ⑤의 '버렸다'는 본용언인 '갔다'에 의미를 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승재'의 행위를 나타낸다. 즉 ⑤는 '승재가 종이를 갔다.'와 '승재가 종이를 휴지통에 버렸다.'의 두 문장이 이어진 문장으로, '버렸다'는 본용언이다.

오답 풀이

- ① '있다'는 앉아 있는 동작이 완료된 상태를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다.
 ② '냈다'는 막는 행위가 종결되었다는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 용언이다.
 ③ '주었다'는 동생을 위하여 효주가 책을 읽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 용언이다.
 ④ '보았다'는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했다는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 용언이다.

4 조사의 특징 파악

보기 1

- ㄱ. 철수가 밥을 먹었다. → '가' : 주격 조사, '을' : 목적격 조사
 ㄴ. 철수만 밥을 먹었다. → '만' : 보조사, '을' : 목적격 조사
 ㄷ. 철수가 밥을 먹었어요.
 → '가' : 주격 조사, '을' : 목적격 조사, '요' : 상태 높임의 보조사
 ㄹ. 철수가 밥과 국을 먹었다.
 → '가' : 주격 조사, '과' : 접속 조사, '을' : 목적격 조사
 ㅁ. 철수가 동생의 밥을 먹었다.
 → '가' : 주격 조사, '의' : 관형격 조사, '을' : 목적격 조사

1 ② 2 ④ 3 ② 4 ③ 5 ①

1 주어의 특징 이해

보기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의 주체를 나타낸다. 주어는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에 주격 조사 ‘이/가’, ‘꺼서’가 붙어 나타나는데, 단체가 주어일 경우에는 ‘에서’를 쓸 수 있다. 때로는 주격 조사 대신 보조사가 붙어 나타날 수도 있다.

주어의 형태 ①
형태 ②

정답해설 ‘신선한 과일은 나도 좋아해.’를 일반적인 어순을 고려하여 풀이하면 ‘나도 신선한 과일은 좋아한다.’가 되므로, 주어는 ‘과일은’이 아니라 ‘나도’이다.

오답 풀이

- ① ‘놀기’가 서술어 ‘힘들다’의 주체가 되고 있다.
 ③ ‘철수’가 서술어 ‘도착하지 않다’의 주체가 되고 있다.
 ④ 일반적 어순으로 풀이하면 ‘저희 쪽에서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이므로 ‘저희 쪽이 서술어 ‘지불하다’의 주체가 되고 있다.
 ⑤ ‘할아버지’가 서술어 ‘지어 주다’의 주체가 되고 있다.

5 감탄사의 구분

보기

감탄사는 문장 속의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성을 가지는 단어로 화자의 놀람, 느낌을 나타내는 경우와 동물을 부르는 소리나 단순한 말버릇, 아무 뜻 없는 더듬거림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문장의 머리에 놓인 제시어나 표제어는 감탄사가 아니며, 원칙적으로 감탄사는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감탄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놓이는 위치도 비교적 자유롭다.

독립언(감탄사)
감탄사의 종류
감탄사의 특징 ①
특징 ②

정답해설 ④의 ‘철수야’는 명사 ‘철수’에 호격 조사 ‘야’가 결합된 형태이다. <보기>에서 감탄사는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철수야’는 체언에 조사가 결합하고 있으므로 감탄사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뭐’는 더 이상 여러 말 할 것 없다는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② ‘옳지’는 좋은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을 때 하는 혼잣말로 감탄사에 해당한다.
 ③ ‘글쎄’는 남의 물음이나 요구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⑤ ‘그렇지’는 ‘틀림없이 그렇다.’는 화자의 생각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2 목적격 조사의 보조사적 용법 파악

보기

‘목적어’는 타동사로 된 서술어에 의해 표시되는 동작이나 행동의 대상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을 말한다. 대체로 체언에 목적격 조사 ‘을/를’이 붙어 이루어지며, 구나 절에 목적격 조사가 붙은 경우도 이에 속한다. 때로는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거나 목적격 조사 대신에 보조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부사어가 올 자리에 목적격 조사가 쓰여 강조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있다.

목적어의 형태 ①
형태 ②
형태 ③
목적격 조사의 예외적 쓰임

정답해설 ④의 ‘지현이는 공휴일에 도서관을 간다.’는 ‘지현이가 공휴일에 도서관에 가다.’의 의미이므로, ‘도서관을’은 부사어가 올 자리에 목적격 조사가 쓰인 경우이다. 이때 쓰인 목적격 조사 ‘을’은 강조의 뜻을 지닌다.

오답 풀이

- ① ‘음료수’에 목적격 조사 ‘를’이 생략되어 있다.
 ② ‘신발’이 문장의 목적어가 되고 있다.
 ③ ‘우리는 점심시간에 축구만 했다.’는 ‘우리가 점심시간에 축구를 했다.’의 의미이므로, ‘축구만’은 목적어가 된다. 따라서 ‘축구만’은 목적격 조사 ‘을/를’ 대신에 보조사 ‘만’이 쓰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⑤ ‘그녀가 오지 않았음’이라는 명사절에 목적격 조사 ‘를’이 결합한 형태로 전체 문장의 목적어가 되고 있다.

3 관형어의 특징 파악

보기

ㄱ. 그는 아직도 현 옷을 입고 있다. 품사: 관형사

ㄴ. 아버지께서는 기쁜 표정을 지으셨다. 품사: 형용사

ㄷ. 그녀가 온 곳 / 그녀가 오는 곳 / 그녀가 올 곳 품사: 동사

ㄹ. 소년은 도시의 풍경을 동경한다. / 소년은 도시 풍경을 동경한다. 품사: 명사+조사 품사: 명사

정답 해설 <보기>에서 밑줄 친 관형어 ‘현’, ‘기쁜’, ‘온/오는/올’, ‘도시의/도시’가 문장 내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쓰이면 비문이 된다. 이처럼 관형어는 문장 내에서 위치 이동에 제약을 받아 반드시 수식하는 체언 앞에만 놓인다는 특성이 있다.

오답 풀이

- ㄱ에서 관형사 ‘현’이 그대로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 ㄷ의 ‘온’은 과거, ‘오는’은 현재, ‘올’은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따라서 관형어는 ‘-ㄴ/-는/-르’와 같은 어미를 통해 시간의 의미를 담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ㄷ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관형어이지만, ㄱ의 ‘현’은 ‘관형사’, ㄴ의 ‘기쁜’은 ‘형용사’, ㄷ의 ‘온/오는/올’은 ‘동사’, ㄹ의 ‘도시의’는 ‘명사+조사’, ‘도시’는 ‘명사’로 품사가 각기 다르다.
- ㄹ의 ‘도시의 풍경’에서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되면 체언만 남아 ‘도시 풍경’이 되고, 이때 ‘도시’는 체언 단독으로 관형어로서 기능하게 된다.

4 부사어의 특징 파악

보기

어제 학교가 ㉠조금 ㉡일찍 끝나 집에 오는데 길가에 코스모스가 ㉢찰 예쁘게 피어 있었다. 매일 지나다니는 길인데 왜 지금까지 보지 못했을까? 내가 ㉣너무 바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생활을 되돌아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앞으로는 ㉥아무리 바빠도 내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베풀 일이 있으면 기꺼이 베풀어야겠다. ㉧부디 코스모스를 오랫동안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답 해설 ‘아무리’는 ‘-어도/-어야’와 함께 쓰여 정도가 심함을 나타낼 때 쓰이므로 호응하는 서술어의 형태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정말’은 호응하는 서술어의 형태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부사어 ‘조금’이 부사어 ‘일찍’을 꾸미고 있다.
- ‘찰’이 용언 ‘예쁘게’를, ‘너무’가 용언 ‘바쁘게’를 꾸미고 있다.
- 접속 부사어 ‘그리고’가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고 있다.
- ‘부디’가 문장 전체를 꾸미고 있으며, ‘소망의 간절함’이라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양태 부사와 호응하는 말

- 양태 부사 중에는 특별한 말들과 호응 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있다.
- **과연** 그 아이는 재능이 뛰어나다. → 주로 평서형과 연결됨.
 - **설마** 그런 곳에 살겠느냐? → 주로 의문형과 연결됨.
 - **제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 주로 명령형과 연결됨.
 - **아무쪼록** 공부나 잘했으면 좋겠다. → 주로 조건의 연결 어미와 연결됨.

5 문장 성분의 종합적 이해

보기 1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를 흔히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문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야 하며,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 네 가지 필수적인 문장 성분을 주성분이라고 한다. 또한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을 관형어라 하며,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을 부사어라 하는데, 이 둘을 묶어 부속 성분이라고 한다. 부사어는 그 성격이 다양하여 ‘다른 부사나 관형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한다. 한편 다른 문장 성분과 관계를 갖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독립어는 독립 성분이라고 한다.’

보기 2

ㄱ. 그는 착하게 생겼다. 주어+부사어+서술어

ㄴ. 영수 학교에 가 버렸어. 주어+부사어+서술어

ㄷ. 장미는 정말 예쁜 꽃이다. 주어+부사어+관형어+서술어

ㄹ. 바야흐로 계절이 여름이 되었습니다. 부사어+주어+보어+서술어

ㅁ. 다혜는 값비싼 선물을 드렸다. 주어+관형어+목적어+서술어

정답 해설 ㄱ의 ‘생기다’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로, 부사어 ‘착하게’를 생략하면 ‘그는 생겼다.’가 되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부사어가 수의적으로 쓰이는 부속 성분이지만,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문장에서 필수적인 성분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영수가’에서 조사를 생략한 ‘영수’만으로도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문장이 성립한다.
- 부사어 ‘정말’이 꾸며 주는 말은 뒤에 오는 용언(형용사)인 ‘예쁜’이다.
- ㄹ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계절이(주어), 여름이(보어, 되었습니다(서술어))로 총 세 개이다.
- ㅁ의 서술어 ‘드렸다’는 주어와 부사어,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ㅁ에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인 부사어(‘~에게’)가 빠져 있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1 이어진문장의 이해

[보기]

- ㄱ. 나는 사과와 딸기를 좋아한다.
→ 접속 조사 '와'에 의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 나는 딸기를 좋아한다.
- ㄴ. 비가 내리면 날씨가 쌀쌀해진다.
→ 연결 어미 '-면'(조건)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비가 내린다. / 날씨가 쌀쌀해진다.
- ㄷ. 형은 농구를 잘하고 동생은 축구를 잘한다.
→ 연결 어미 '-고'(나열)에 의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형은 농구를 잘한다. / 동생은 축구를 잘한다.
- ㄹ. 봉선화의 색깔은 붉거나 희다.
→ 연결 어미 '-거나'(선택)에 의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봉선화의 색깔은 붉다. / 봉선화의 색깔은 희다.

[정답 해설] ㄹ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이때 '붉거나 희다'는 '붉다' 또는 '희다'를 의미하므로, 앞 절과 뒤 절이 '선택'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것이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 선택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는 '-든지', '-거나' 등이 있다.

[오답 풀이]

- ① ㄱ은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와 '나는 딸기를 좋아한다.'의 두 문장이 접속 조사 '와'에 의해 나열의 의미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 ② ㄴ은 조건이나 가정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인 '-(으)면'이 사용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ㄷ은 나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고'로 연결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 ③ ㄷ과 같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꾸어 써도 의미 차이가 없다. 그러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꾸어 쓸 경우 문장이 성립되지 않거나 의미가 변하게 된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 ④ '-거나'와 '-든지'는 모두 선택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둘을 바꾸어 써도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

2 이어진문장에서 연결 어미의 통사적 제약 파악

[보기]

선생님 : 이어진문장에 쓰이는 연결 어미 중에서 일부의 연결 어미는 통사적 제약 때문에 '-았/었-'과 같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와 결합하지 못합니다. 그럼 다음 밑줄 친 부분에서 어떤 연결 어미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말해 볼까요?

- 나는 숙제를 하느라고 잠을 못 잤다.
하-+-았-+-느라고 → 했느라고(×)
- 봄은 오지만 내 마음은 아직 겨울이다.
오-+-았-+-지만 → 왔지만(○)

- 수지를 만나더라도 그 얘기는 안 할 것이다.
만나-+-았-+-더라도 → 만났더라도(○)
- 그녀는 노래를 부르고자 음악 대학에 진학했다.
부르-+-았-+-고자 → 불렀고자(×)

학생 : (①)이/가 해당됩니다.

[정답 해설] '나는 숙제를 하느라고 잠을 못 잤다'의 '-느라고'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을 넣으면 '나는 숙제를 했느라고'가 되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그녀는 노래를 부르'고자' 역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을 넣으면 '노래를 불렀고자'가 되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결 어미 '-느라고'와 '-고자'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함께 쓰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봄은 오지만 내 마음은 아직 겨울이다.' → '봄은 왔지만 내 마음은 아직 겨울이다.'(○)
- '수지를 만나더라도 그 얘기는 안 할 것이다.' → '수지를 만났더라도 그 얘기는 안 했을 것이다.'(○)

3 안은문장의 이해

[보기]

- ㄱ. 지영이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 지영이는 땀을 닦았다. + (땀이) 이마에 흐르다 : 관형절을 안은 문장
- ㄴ. 오늘 비가 오겠다고 한 기상대의 예보가 틀렸다.
(오늘 비가 오겠다고) 한(인용절) 한(관형절)
- ㄷ. 길이 비가 와서 질다. → 길이 질다+비가 왔다. : 부사절을 안은 문장
- ㄹ. 그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에 그녀를 만났다.
비가 오다+바람이 부다 : '나열'의 의미 관계를 지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그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에 그녀를 만났다.
관형절을 안은 문장

[정답 해설] ㄱ의 밑줄 친 부분에서 생략된 주어가 '지영이는'일 경우 '지영이는 이마에 흘렀다.'가 홀문장이 되어야 하는데 의미상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생략된 주어는 뒤에 오는 '땀'으로, ㄱ의 밑줄 친 부분은 '땀이 이마에 흘렀다.'라는 홀문장이 전체 문장에서 관형절의 형태로 안긴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다른 문장 속에서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안긴문장이라 하고, 이를 포함한 문장을 안은문장이라 한다. 밑줄 친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ㄱ, ㄴ, ㄹ은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고 ㄷ은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 ③ ㄴ의 밑줄 친 부분은 '기상대'라는 명사를 꾸미며 전체 문장 안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은문장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오늘 비가 오겠다고'라는 간접 인용절이 다시 안겨 있다.
- ④ ㄷ의 '비가 와서'는 앞 절로 자리 이동을 하여 '비가 와서 길이 질다.'로 쓰일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의 의미 관계를 지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⑤ ㄹ의 밑줄 친 부분은 '날'을 꾸미는 관형절로, 전체 문장은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 된다. 그런데 관형절 자체가 '나열'의 의미 관계를 지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비가 오다. + 바람이 부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ㄹ은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형식이라 볼 수 있다.

4 명사절의 기능 파악과 서술절을 안은 문장의 구분

보기 1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으)ㄴ’, ‘-기’가 붙어서 만들어지며, 명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주어,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절이다.」
명사절이 만들어지는 형식
명사절의 기능

서술절은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서술절임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지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안긴문장과 차이가 있다.」
서술절의 기능
서술절의 특징
서술절을 안은 문장의 특징
 ㉡서술절을 안은 문장은 「한 문장에 주어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앞에 나오는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서술절에 해당한다.

[정답해설] ②의 ㉠에서 ‘내가 감당하기에는’은 명사절 ‘내가 감당하기’에 조사 ‘에는’이 붙어 문장 내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의 ‘마음이 넓다.’는 절 전체가 안은문장의 주어인 ‘누나는’의 서술어로 쓰이고 있으므로 서술절을 안은 문장의 예로 적절하다. ②의 ㉡의 주어가 ‘누나는’과 ‘마음이’로 두 개인 듯이 보이는 이유는 한 문장에 주어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서술절의 특징 때문이다.

- [오답 풀이]**
- ① ㉠의 밑줄 친 부분은 주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고, ㉡은 연결 어미 ‘-면(조건, 가정)’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③ ㉠의 밑줄 친 부분은 관형어의 기능(뒤에 오는 명사 ‘전’을 꾸밈.)을 하는 명사절이고, ㉡은 ‘땅이 젖게’라는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 ④ ㉠의 밑줄 친 부분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고, ㉡은 ‘바람이 들어오게’라는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 ⑤ ㉠의 밑줄 친 부분은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고, ㉡은 ‘집이 어디냐고’라는 인용절(간접)을 안은 문장이다.

8 문법 요소 (1)

핵심 개념 적용하기

본문 52~53쪽

1 ⑤ 2 ④ 3 ② 4 ③ 5 ⑤

1 의문문의 종류와 특성 파악

보기 1

의문문에는 화자가 청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이 있다. 하지만 그중에는 **수사 의문문**처럼 굳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이나 명령, 감탄의 효과를 내는 의문문도 있다.

보기 2

ㄱ. 지금 밖의 날씨가 추운가요? → **판정 의문문**
 ㄴ. 네가 지금 말고 있는 일은 무엇이니? → **설명 의문문**
의문사가 쓰여 설명을 요구함.
 ㄷ. 어릴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 **수사 의문문(감탄)**
청소할 것을 명령함.
 ㄹ. 너희들, 지금 청소 시간인데 청소 안 하고 뭐 하는 거니? → **수사 의문문(명령)**

[정답해설] ㄹ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진술이 아니라, ‘지금 은 청소 시간이니 너희들은 청소를 해라.’라는 명령의 뜻을 전달하는 수사 의문문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ㄱ은 화자가 청자에게 밖의 날씨가 추운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판정 의문문이다.
- ② ㄴ은 화자가 청자에게 그가 말고 있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다.
- ③ ㄷ과 ㄹ 모두 청자에게 굳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수사 의문문이다.
- ④ ㄷ은 부사 ‘얼마나’를 함께 사용하여 ‘어릴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좋겠구나!’라는 감탄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2 명령문의 특성 파악

선생님 : 오늘은 명령문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다음 문장에서 유추할 수 있는 명령문의 특성에 대해 말해 볼까요?

○ : 명령문의 주어, 청자를 가리킴.
 ■ : 화자가 청자에게 요구하는 것

• **엄마**, 저 **도시락** 좀 **싸** 주세요. — 직접 명령문
 • (동생에게) **수민아**, **이리** 와 **봐**.
 • **애들아**, 내일은 늦지 않게 **빨리** 와.

• (시험지에서)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 간접 명령문
화자 없이 청자만 존재하는 상황이며, 청자인 ‘수험생 여러분’이 생략되어 있음.

학생 : _____

[정답해설] 명령문은 여러 가지 문법적 제약을 받는다. 명령문의 주어는 반드시 청자이고, 서술어는 동사로 한정된다. 또한 제시된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았/었-, -더-, -겠-’ 등의 시간 표현 선어말 어미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제시된 문장들은 모두 명령문이며,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문장은 청유문이다.
- ② 시험지에서 알맞은 답을 고르라는 상황처럼 명령문이 실현되는 실제 담화 현장에는 화자 없이 청자만 있을 수 있다.
- ③ '엄마, 저 도시락 좀 싸 주세요.'의 청자는 화자보다 나이가 많고, '수민아, 이리 와 봐.'의 청자는 화자보다 나이가 어리다. 두 문장은 모두 명령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청자의 나이가 어릴 때 명령의 내용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수민아, 이리 와 줄래?'처럼 의문형의 종결 표현으로 바꾸어도 명령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3 주체 높임의 특성 파악

보기

- ㄱ. 할아버지께서 낮잠을 주무신다.
- ㄴ. 졸업한 선배님이 모교를 찾아오셨다.
- ㄷ. 교수님께서 지금 연구실에 계십니다.
- ㄹ. 담임 선생님은 댁이 학교에서 멀지 않으시다.

* 밑줄 친 부분은 주체 높임의 표현이 쓰인 곳임.

정답 해설 ㄴ에서 '찾아오셨다'는 '찾아오다'에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된 말이지만, ㄱ에서 '주무신다'는 '주무시다'가 동사의 기본형이므로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된 말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ㄱ~ㄷ은 각각 서술의 주체인 '할아버지', '선배님', '교수님'을 높이고 있다.
- ③ ㄱ은 '할아버지가'가 '할아버지께서'로, ㄷ은 '교수님이'가 '교수님께서'로 쓰였는데, 이를 통해 주격 조사 '이/가' 대신 '께서'가 결합하여 주체 높임이 실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ㄷ은 '있다'의 높임말인 '계시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를 통해 서술의 주체인 '교수님'을 높이고 있다.
- ⑤ ㄹ은 높여야 할 대상인 '선생님'의 소유물인 '댁(집)'에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높임의 대상과 관련된 말을 높여 주체를 높이는 방법을 간접 높임 표현이라 한다.

4 객체 높임의 실현 이해

보기

객체 높임이란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는 특수한 몇몇 동사를 통해 실현되며, '예게'를 대신하는 특정 부사격 조사가 사용되기도 한다.
객체 높임의 실현 방법 ①: 모시다, 여쭙다, 드리다, 빌다 등
 방법 ②: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

정답 해설 '아버지께서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에서는 주격 조사 '께서'와 높임 선어말 어미 '-시-'에서 주체 높임을, 종결 어미 '-ㅂ니다'에서 상대 높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장에 객체 높임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찾아뵙다'를 사용해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선배님'을 높이고 있다.
- ②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해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 ④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 '여쭙다'를 사용해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 ⑤ '모시다'를 사용해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5 미래 시제의 특성 탐구

보기

- ㄱ. 제가 꼭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 미래의 일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표현함.
- ㄴ. 곧 떠날 사람인데 잘 대해 주어라.
→ 관형사형 어미 '-ㄹ'로 미래 시제 실현
- ㄷ. 내년 생일에는 특별한 선물을 사 주리라.
→ 부사 '내년', 선어말 어미 '-리-'로 미래 시제 실현
- ㄹ. 내일은 태풍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 부사 '내일', 통사적 구성 '-(으)ㄹ 것'으로 미래 시제 실현

정답 해설 미래 시제는 선어말 어미 '-겠-', '-(으)리-', 관형사형 어미 '-ㄹ' 등을 통해 실현된다. ㄹ에는 '내일'이라는 시간 부사어가 쓰이고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 명사의 통사적 구성인 '-(으)ㄹ 것'의 형태를 사용해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ㄱ~ㄹ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오는 시제이다.
- ② 선어말 어미 '-겠-'은 일반적으로 미래 시제를 실현할 때 쓰이는데,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이나 가능성, 화자의 의지, 화자의 완곡한 태도 등을 나타낸다. ㄱ에 쓰인 '-겠-'은 '그곳으로 가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 ③ ㄱ과 ㄷ에는 각각 선어말 어미 '-겠-'과 '-리-'가 쓰여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ㄷ의 '내년'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함께 쓰여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 ④ '곧 떠날 사람인데 잘 대해 주어라.'에서 '떠날'에 사용된 관형사형 어미 '-ㄹ'은 반드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나타낼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먼 훗날 떠날 사람인데'처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된다.

핵심 개념 적용하기

본문 58~59쪽

1 ④ 2 ② 3 ④ 4 ①

1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의 구분

보기 1

피동 표현은 주체가 다른 사람에 의해 어떤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낸 표현이다. 피동 표현이 실현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능동사 어근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붙어서 이루어지는 파생적 피동, 용언의 어간에 ‘-아/어지다, -게 되다’가 붙어서 이루어지는 통사적 피동, 어휘 자체가 피동의 의미를 띠는 어휘적 피동 등이 있다.

정답 해설 ‘그들은 음식을 먹이지 않고 먹는다.’는 주어인 ‘그들’이 다른 대상인 ‘음식’으로 하여금 ‘익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사동 표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깎-’이라는 어간에 ‘-아지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통사적 피동에 해당한다.
 ② 어휘 자체가 피동의 뜻을 지닌 ‘당하기(당하다)’를 사용하고 있다.
 ③ ‘뜯-’이라는 어근에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적 피동에 해당한다.
 ⑤ ‘먹-’이라는 어간에 ‘-게 되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통사적 피동에 해당한다.

지식 더하기

피동사와 사동사의 구분

접미사 ‘-이-, -히-, -리-, -기-’는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에서 모두 사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들 접미사가 사용된 경우 피동사인지 사동사인지를 구별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목적어의 유무로 피동사와 사동사를 구별할 수 있다.

예 • (피동문) 벽에 걸려 있는 시계가 보였다. → 목적어 없음.
 • (사동문) 그는 나에게 사진첩을 보였다. → 목적어 있음.

2 사동 접미사 ‘-이우-’의 이해

질문

보통 사동사는 ‘먹이다’의 ‘-이-, ‘끼우다’의 ‘-우-’처럼 사동 접미사가 하나만 붙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재우다’에서 ‘재우다’는 ‘자-+-이-+-우-+-다’로 분석되므로 ‘자다’에 사동 접미사 ‘-이-’와 ‘-우-’ 두 개가 붙어 이루어진 이중 사동 표현 아닌가요?

답변

물론 ‘재우다’를 어원적으로만 분석하면 ‘자-+-이-+-우-+-다’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우-’를 하나의 접사로 보고 있습니다. 단어 형성에 대한 판단은 이론적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이우-’를 하나의 접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접사 ‘-이우-’가 붙어 만들어진 사동사는 ‘재우다’
일부 자동사에서는 접미사가 연속된 ‘-이우-’가 붙어서 사동사가 되기도 함. ㉠ 띄우다, 세우다, 씌우다, (빈자리를) 채우다
 이외에도 여럿이 있습니다.

정답 해설 ‘차를 태우다’에서 ‘태우다’는 ‘타다’에서 온 말이므로 어원적으로 ‘타-+-이-+-우-+-다’로 분석된다. 이는 <보기>의 ‘재우다’와 동일한 형태이므로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이우-’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깨우다’는 ‘잠, 꿈 따위에서 벗어나다. 또는 벗어나게 하다.’라는 의미의 ‘깨다’에서 온 말이므로 ‘깨-+-우-+-다’로 분석된다.
 ③ ‘데우다’는 ‘식었거나 찬 것을 덥게 하다.’라는 말로, 사동 접미사가 붙지 않은 단어이다. 참고로 ‘데다’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이므로 *‘찌개를 데다.’로 쓰면 잘못된 표현이다.
 ④ ‘메우다’는 ‘뿔려 있거나 비어 있는 곳이 막히거나 채워지다.’라는 의미의 ‘메다’에서 온 말이므로 ‘메-+-우-+-다’로 분석된다.
 ⑤ ‘아궁이 따위에 불을 지피어 타게 하다.’라는 뜻의 ‘때다’와 ‘때우다’는 의미적 관련이 없으므로, 사동 접미사가 붙은 단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제시된 문장에서 ‘때우다’는 ‘간단한 음식으로 끼니를 대신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3 부정 표현의 이해

보기 1

부정문에서 부정 표현은 부정 부사 ‘안’, ‘못’과 부정 용언 ‘아니하다(않다)’, ‘못하다’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부정 부사를 통한 부정은 ‘짧은 부정’, 부정 용언을 통한 부정은 ‘긴 부정’이라 한다. ‘안, 아니하다’ 부정은 다시 의지의 작용 여부에 따라 ‘의지 부정’과 ‘단순 부정’, ‘못, 못하다’ 부정은 능력의 작용 여부에 따라 ‘능력 부정’과 ‘타의(他意) 부정’으로 나뉜다. 그리고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 외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할, ‘말다’ 부정문이 나타나는 문장 종결 형식은 ‘말다’ 부정문이 쓰인다.

형태 의미	짧은 부정	긴 부정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긴 부정 (명령문, 청유문)
의지 부정, 단순 부정	안	-지 아니하다, 않다	-지 마라, 말자
능력 부정, 타의 부정	못	-지 못하다	-지 마라, 말자

1 담화의 구성 요소 및 담화 표현의 기능 파악

보기

공간적 배경

큰아버지 : ㉠명지야, 거실에 너밖에 없니?

명지 : 네, 부모님께서서는 외출하셨어요. → 정보 제공의 기능

큰아버지 : 그러니? 참, 보러 간단던 영화는 재미있게 봤니?

명지 : ㉡예, 큰아버지. ^(영화가)생각했던 것보다 무척 흥미진진했어요.

큰아버지 : 그랬구나. 나도 영화를 꽤 좋아했단다. 그 시절 영화관에서는 영화 시작 전에 애국가가 나왔었지.

명지 : 예? ㉢영화관에서 애국가가 나왔었다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 큰아버지와 명지가 사회·문화적 맥락의 차이를 보임

큰아버지 : 응, 그렇지. 너희들은 잘 모를 거야. 오래전에는 다 ㉣그랬었던단다. 그런데 방 안이 조금 답구나. 시원하게 마실 게 뭐 없을까?

명지 : ㉤여기 냉장고에 시원한 것들이 있어요. 드시겠어요?

큰아버지 : 거기? 그래, 물을 좀 마셔야겠다. ^{화자(명지) 자신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킴}
^{청자(명지)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킴}

[정답해설] <보기>의 담화는 큰아버지와 명지 두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담화 속 발화는 전반적으로 자신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사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역시 영화의 줄거리나 주제, 배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감상하고 난 후의 주관적인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정보 전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주어진 담화에서 정보 전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문장은 명지의 첫 번째 발화인 “네, 부모님께서서는 외출하셨어요.”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의 ‘거실’이라는 말에서 담화 장면의 공간적 배경이 명지의 집 거실임을 알 수 있다.
- 큰아버지는 오래전 자신이 영화관에서 경험했던 상황을 명지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명지는 예전에 영화관에서 애국가가 나왔었다는 말에 깜짝 놀라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대답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통해 두 사람이 세대 차이에 따른 사회적·문화적 맥락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리하다’는 ‘앞에서 언급한 행위를 하다.’를 의미하는 지시어이다. 그러므로 ㉢ 발화의 바로 앞에 언급된 명지의 발화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내용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간결한 지시어 등을 활용하는 것을 대용 표현이라 한다.
- 동일한 대상인 냉장고를 가리킬 때 명지는 ‘여기’라고 표현하고, 큰아버지는 ‘거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는 대상이 화자에게 가까울 때 쓰이는 지시어이고, ‘거기’는 대상이 청자에게 가까울 때 사용하는 지시어이므로, 지시 대상인 ‘냉장고’가 큰아버지보다 명지에게 가까운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기 2

ㄱ. 동수는 오늘 학교에 ㉠갔다.

→ 동수의 의지에 의한 부정(‘안’ 부정문, 짧은 부정, 의지 부정)

ㄴ. 어제는 몸이 아파 밖에 ㉡나갔다.

동작 주체의 능력 부족

→ 동작 주체의 능력 부족에 의한 부정(‘못’ 부정문, 짧은 부정, 능력 부정)

ㄷ. 요즘 장마철이라 해가 보이지 ㉢않는다.

→ 객관적 사실의 부정(‘안’ 부정문, 긴 부정, 단순 부정)

ㄹ. 아직 내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 동작 주체의 능력 부족에 의한 부정(‘못’ 부정문, 긴 부정, 능력 부정)

ㅁ. 배탈이 났을 때는 당분간 밥을 먹지 ㉤마라.

→ 명령문의 부정(‘말다’ 부정문, 긴 부정)

[정답해설] ‘아직 내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주체인 ‘나’의 능력이 부족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타의 부정’이 아닌 ‘능력 부정’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안’을 사용한 짧은 부정문을 긴 부정문으로 바꿀 때는 부정 용언 ‘-지 않다’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몸이 아파서 나가지 못한 것이므로 ‘능력 부정’에 해당한다.
- ③ 주체의 의지가 나타나지 않으며,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단순 부정’으로 볼 수 있다.
- ⑤ 명령문은 ‘안’ 부정문이나 ‘못’ 부정문으로 바꿀 수 없다.

4 인용 표현의 변화 이해

보기

인용 표현은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쓰는 것으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다.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은 ^{직접 인용은 생생한 느낌을 주고, 간접 인용은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줌.} 그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바꾸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바꾸어 쓸 때에는 시간 표현, 지시 표현, 인칭 대명사, 높임 표현, 인용절 속의 어미, 인용 조사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남의 말이나 글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따온 절} 다음 직접 인용의 예를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 가 변한다.

[예] 어제 진수가 “내일 이 옷을 그녀에게 줘.”라고 말했다.
→ [간접 인용] 어제 진수가 오늘 그 옷을 그녀에게 주라고 말했다.

[정답해설] 제시된 직접 인용의 예를 간접 인용으로 바꾸려면 먼저 ‘어제’의 ‘내일’은 ‘오늘’이므로 ‘내일’을 ‘오늘’로 바꾸어야 한다(시간 표현). 그리고 ‘이’는 대상이 화자(진수)에게 가까울 때 쓰는 말이므로 대상이 청자에게 가까울 때 쓰는 말인 ‘그’로 바꾸어야 한다(지시 표현). 그리고 직접 인용절의 ‘줘’는 ‘주다’의 어간 ‘주-’에 명령문의 간접 인용 표현 어미 ‘-(으)라’(인용절 속 어미)와 간접 인용 조사 ‘-고’(인용 조사)를 붙여 ‘주라고’로 바꾸어야 한다.

오답 풀이

- 직접 인용절의 인칭 대명사 ‘그녀’는 변화가 없다.
- 직접 인용절의 ‘줘’가 ‘주라’로 바뀌기 때문에 높임 표현에는 변화가 없다.

2 담화의 기능 파악

보기			
기능	사례	기능	사례
선언	이제 곧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지	계단을 뛰어 내려가지 마시오. <small>부정 표현</small>
명령	다 읽지 못한 책을 마저 읽어라. <small>명령형 어미</small>	질문	너 언제 밥 먹을 거니?
요청	나 대신 그 일을 해 주면 좋겠어.	약속	내가 너 대신 그 일을 해 줄게.
청유	다 읽지 못한 책을 마저 읽자. <small>청유형 어미</small>	비난	도대체 언제 내 말을 들을 거니? <small>답을 요구하지 않는 수사 의문문</small>

[정답해설] 담화는 발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행위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담화의 내용은 화자가 상황을 바라보는 심리적 태도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즉, 화자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태를 단정, 확인, 추정하며 자신의 의지 등을 드러낼 수 있다. ⑤에서 '요청'의 사례에는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 하지만 '약속'의 사례에는 호소의 태도가 아닌,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다짐과 의지의 태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선언'은 특정 사람들에게 의식, 행사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담화로, 주로 어떤 새로운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제시된 사례는 선언의 기능과 함께 청자에게 '이제 곧 개막식을 시작하겠다.'는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담화가 반드시 하나의 기능만을 갖는 것은 아니며, 화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 '질문'의 사례는 '언제'라는 의문사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다. 반면 '비난'의 사례인 '도대체 언제 내 말을 들을 거니?'는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청자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수사 의문문(반어 의문문)에 해당한다.
- '명령'의 사례에서 '읽어라'의 '-어라'는 명령형 어미이고, '청유'의 사례에서 '읽자'의 '-자'는 청유형 어미에 해당한다. 이처럼 명령문과 청유문은 어미에 따라 상이한 기능을 수행한다.
- '금지'의 사례에서 '마시오(말다)'는 부정 표현에 해당한다. 이 '말다'는 '없다'와 같이 부정 표현의 특수 어휘이다.

3 담화 상황의 종합적 이해

보기	
ㄱ. (선지와 엄마가 통화하며) → 전화 매체를 통한 담화	
선지 :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으니가 연락해 보세요.	
엄마 : 내가 휴대 전화를 꺼 놓아 집으로 연락한 모양이네.	
ㄴ. (사장실에서 사장이 실수가 잦은 사원에게)	
사장 : 우리 회사에서 일한 지 몇 년이 되었죠?	
사원 :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small>실수가 잦은 직원을 질책하는 사장의 말에 사원은 주의하겠다고 상황에 적절한 대답을 함.</small>
ㄷ. (리뷰점에서 학생이 어머니에게)	
학생 : 어머니, 지금까지 본 옷 중 저 옷이 가장 맘에 들어요.	
어머니 : 알았어. 네가 원하는 저 옷을 사 줄게.	<small>→ 의도 : 저 옷을 사고 싶다.</small>

ㄴ. (사원이 부서 사람들에게 기획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사원 : 이번 사업은 남들보다 먼저 신상품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우리 회사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는 점에서 더욱 그려합니다.
대용 표현
부서원 : (손을 들며) 질문해도 됩니까?

[정답해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대신하는 표현'을 '대용 표현'이라고 한다. 제시된 발화에서는 ㄴ에서 사원의 발화 중 '그려합니다'가 앞에 나온 '우리 회사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말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대용 표현에 해당한다. 그러나 ㄱ과 ㄷ에는 이와 같은 대용 표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 풀이

- ㄴ~ㄷ은 화자와 청자가 직접 만나 대면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담화임에 비해, ㄱ의 엄마와 선지는 전화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화하고 있다. 따라서 ㄱ이 매체 담화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발화는 크게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로 나뉜다. 직접 발화는 문장 유형과 담화 의도가 일치하는 발화이고, 간접 발화는 문장 유형과 담화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 발화이다. ㄴ에서 사장의 발화는 문장 유형상 의문문(질문)이지만, 발화 의도는 질책과 꾸지람에 가깝다. 사원은 이러한 사장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여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적절한 대답을 하고 있다.
- ㄷ의 학생의 발화는 마음에 든 '저 옷'을 사고 싶다는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발화를 직접 발화로 고칠 경우, 자신이 마음에 드는 옷을 사 달라고 요청하는 발화로 바꿀 수 있다.
- ㄷ의 담화는 사원이 부서 사람들 앞에서 기획안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보고하는 말하기는 공식적인 담화에 해당한다. ㄴ은 사장과 사원의 담화 상황이지만 '사장실'이라는 공간에서 대화 참여자인 두 사람만이 있으므로, 비공식적 담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 담화 표현의 기능 파악

보기	
은희 : 지민아, 서점 앞으로 가서 경혜를 기다리자. 서점에서 ① <u>우리</u> 책을 같이 보기로 한 것 맞지? 그리고 나서 경혜네 집에 가기로 했잖아?	<small>은희, 지민 → 대화 장면에 있음. 경혜 → 대화 장면에 없음.</small>
지민 : 응, 맞아. 경혜는 두 시쯤 도착할 거라고 했어. ② <u>그런데</u>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 우리 ③ <u>천천히</u> 갈까?	<small>은희와 지민이가 경혜를 만나기로 한 시간 경혜가 약속 시간에 늦은 상황</small>
경혜 : 애들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은희 : 경혜야, ④ <u>지금</u> 몇 시니?	
경혜 : 차가 너무 막혀서……. 정말 미안해.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⑤ <u>저쪽에</u> 맛있는 분식집이 있어. 내가 반성의 의미로 떡볶이 살게.	
지민 : 오, 정말이지? 맛있겠다. 빨리 가자.	

1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적용

보기 1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우리의 문자인 한글로 적는 방법을 정한 규칙이다. 그 기본 원리로 제1장 총칙 제1항에서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표음 문자이자 음소 문자인 한글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는 점과 그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내용이다.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이유는 예를 들어 '꽃'이라는 단어가 조사 '이'와 결합하면 [꼬치]로, 조사 '만'과 결합하면 [곤만]으로 발음되는데, 소리 나는 대로 적을 경우 정확한 의미를 찾기 어려워 의사소통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기 2

- ㉠ '해돋이'와 '같이'는 각각 [해도지], [가치]로 발음되지만 '해돋이', '같이'로 표기한다. 소리대로 적지 않음(㉢).
- ㉡ 어간 '잇-'에 어미 '-어'가 결합한 것은 '이어'로 적고, 어간 '잇-'에 어미 '-으니'가 결합한 것은 '이으니'로 적는다. 소리대로 적음(㉢).
- ㉢ '한끝에서 다른 한끝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갈이'는 어근 '갈-'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기리]로 발음되지만 '갈이'라고 표기한다. 소리대로 적지 않음(㉢).
- ㉣ '넙히다', '갇추다' 등 용언의 어간에 사동 접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혀 적는다. 소리대로 적지 않음(㉢).

정답해설 한글 맞춤법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기본 원리가 적용된 예를 찾는 문제이다. ㉠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단어가, ㉡은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표기하는 단어가 해당된다. ㉢은 [해도지], [가치]로 발음되는 것을 그 원형을 밝혀 '해돋이', '같이'로 표기한다는 내용이므로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중 ㉣ 규정의 예로 적절하다. ㉣의 예를 어법에 맞게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면 '잇-+-어'는 '이어'가 되고, '잇-+-으니'는 '이으니'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어], [이으니]로 발음되는 현상을 표기에 그대로 반영하여 '이어', '이으니'로 적으므로, 이는 ㉠의 규정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은 [기리]라는 발음 대신 형태소의 원형을 밝히는 '갈이'를 표준어로 인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의 규정에 해당한다. ㉣ 역시 [넙히다]와 [갇추다]로 발음되는 단어들을 그 어간을 밝혀 '넙히다', '갇추다'로 적으므로 ㉣의 규정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 해당하는 예는 ㉡이고, ㉣에 해당하는 예는 ㉢, ㉣, ㉣이다.

정답해설 은희와 지민이는 2시에 경혜와 만날 예정이었지만, 경혜는 2시 반이 되어서야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 '지금 몇 시니?'는 현재 시각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질책하는 말이다. 즉 이 발화의 문장 유형은 의문문이지만 그 의도는 질문이 아니므로, 문장 유형과 발화 의도가 불일치하는 간접 발화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 은희의 첫 번째 발화를 통해 은희와 지민이가 경혜를 만나 서점에서 책을 보기로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 '우리'는 '책을 같이 보기로 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은희, 지민, 경혜'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경혜는 은희의 첫 번째 발화 장면 속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 접속 표현은 문장과 문장, 담화와 담화를 연결해 주는 표현이다.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는 다른 화제로 이어 주는 접속 표현이므로, ㉡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 ㉢의 발화는 의문문의 형태이지만, '천천히 가자.'라는 의도를 전달하는 청유의 기능을 수행한다.
- ㉣ '저쪽'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서 멀리 있는 곳이나 방향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다. 청자에게는 가깝지만 화자에게는 멀리 있는 곳을 가리킨다면 '그쪽'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핵심 개념 적용하기

본문 76~77쪽

1④ 2⑤ 3⑤ 4④

1 고유 명사 차자 표기의 이해

[자료] 永同郡 本吉同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영동군 본길동군 경덕왕 개명 금인지
— 『삼국사기』 권 제3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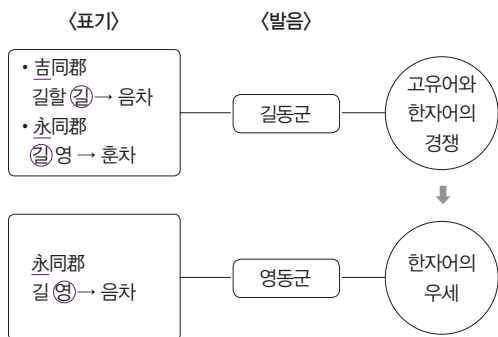
한자	뜻	음
永	길	영
吉	길할	길

[풀이] 영동군(永同郡)은 본래 길동군(吉同郡)에서 영동(永東)으로 개칭된 것이다.

郡)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 이를 그대로 쓰고 있다.

[가설] 본래 '길동군'이라 불린 지역은 경덕왕 이전에는 한자를 이용하여 '吉同郡'이나 '永同郡'으로 표기하고, 이 두 가지 표기를 모 두 '길동군'이라 읽었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사람들은 '永同郡'을 '영동군'으로 읽게 되었고, 경덕왕은 이에 따른 혼 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명(地名)을 개명했을 것이다.

[핵심 한눈에 보기]



정답 해설 '길동군'의 훈차 표기였던 '永同郡'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뜻이 아닌 음으로 읽게 되었고, 이에 경덕왕은 '영동군'으로 지명을 고치게 된다. 이는 고유 명사의 표기가 고대 국어 초기에 훈차(훈독)의 방식이었던 것이 점차 음차(음독)의 방식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므로, ④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길동군'을 '吉同郡'으로 표기한 것은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한 것(음차)이고, '永同郡'으로 표기한 것은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한 것(훈차)에 해당한다.
- ② '길동군'이라는 고유 명사를 '吉同郡'과 '永同郡'의 두 가지 방식으로 표기한 것에서 당시 음차와 훈차의 표기 방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고유어인 '길동군'을 한자어인 '영동군'으로 고친 것으로 보아, 고유어와 한자어의 경쟁 속에서 고유어가 밀리고 한자어의 세력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 ⑤ '이우내(이우른 내)'를 '병천(甁川 : 아우를 병, 내 천)'으로 표기한 것은 한자의 뜻을 차용한 것이다. 이는 경덕왕 이전의 표기 방식에 해당하며, 경덕왕 이후에는 한자의 음을 빌려 적는 표기법이 정착되었다.

2 중세 국어의 특징

보기

㉠ 물근 古諺 恨 고비 ㉡ 모습홀 아나 흐르니, ㉢ 관곽역 조사 'ㅅ' 이 쓰임.
 긴 녀류 ㉣ 江村(강촌)에 일마다 幽深(유심)하다. ㉤ 현재 시제, 선어 말 어미 'ㄴ'
 ㉥ 두음 법칙 적용 ㉦ 처소적 조사
 절로 가며 절로 ㉧ 오느니 집 우회 저비오, 「원순 모음화 적용 ×
 서르 親(친)하며 서르 ㉨ 갓잡느니 님 가운뎃 굴며기르다.
 - 『보림두공부시언해』 초간본 권 제7(1481)

* 무술홀: ‘무술 ㅎ + 홀’의 형태소로 분석함.

* 오누닌 : ‘오+누+ㄴ+0|+ㄴ’의 형태소로 분석함.

정답 해설 현대어 풀이를 참고하면, ㉠은 ‘오는 것은(이는)’, ㉡은 ‘가까운 것은(이는)’으로 해석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 ㉡의 형태소 분석에 나타난 ‘이는’은 현대 국어의 의존 명사 ‘것’ 또는 ‘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은 현대어에서 양성 모음 ‘ㅏ’와 음성 모음 ‘ㅑ’가 결합된 형태인 ‘맑은’이 중세 국어에서는 ‘물근’으로 쓰여 양성 모음인 ‘ㅑ’끼리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무술’이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자 ‘ㅎ’이 덧붙여 나타났다. 같은 예로 세 번째 행의 ‘우헛(우^ㅎ+의+ㅅ)을 들 수 있다.
- ③ ‘강촌애’는 현대어에서 ‘강촌에’로 풀이된다. 중세 국어의 처소격 조사 ‘애’는 결합하는 체언의 끝음절이 양성 모음일 때 쓰였다.
- ④ ㉡은 ㉠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진 말로, <보기>에 제시된 ㉡의 형태소 분석을 참고하여 ‘갓갑+ㄴ+ㄴ+이+ㄴ’의 형태로 분석할 수 있다.

3 중세 국어의 높임법의 파악

보기 1

중세 국어의 높임법에는 선어말 어미 ‘-시/샤-’를 사용하여 행위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선어말 어미 ‘-추/슴/습-’을 사용하여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에 오는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법, 선어말 어미 ‘-이/잇-’을 사용하거나 종결법을 달리하여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상대 높임법이 있다.

보기 2

7. 海東(해동) 六龍(육룡)이 **노르샤** 일마다 天福(천복)이시니.
 '노르샤'에서 '하' 탈락
 - 『용비어천가』 제3장

ㄴ. 섬 안해 자[㉠]신제 한비 사으리로디 뷔어샤 족므니이다.

자-+-시-(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르(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ㄹ(된소리 부호) -『용비어천가』 제67장

ㄷ. 님금하 아르쇼셔 洛水(낙수)예 山行(산행) 가 이셔 하나빌 미드
 ‘쇼셔’는 아주높임인 ‘후쇼셔체’의 명령형 종결 어미임.

나잇기 - 판정 의문문의 의문형 종결 어미
 ↳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의문형 앞에서 '-하-') - 『용비어천가』 제125장

르.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슬픈 부모씨 받조은 거시라,
 받-+조-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은 : 받조은(15세기)>받조은 → '받' 소실
 - 『소학언해』 권 제2

[정답해설] 현대어 풀이를 보면 ‘부모의 받조은’은 ‘부모께 받은’으로 해석되므로, ㄹ에서 ‘받조은’의 ‘-줍-’은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어인 ‘부모’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오답 풀이

- ① ‘노루새(날으시어)’의 주제는 ‘해동(海東)의 육룡(六龍)’이며, 선어말 어미 ‘-샤-’를 사용해 문장의 주체인 ‘육룡’을 높이고 있다.
- ② ‘자심’에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쓰였으며, 현대어 풀이를 통해 ㄴ의 생략된 주어가 ‘조선 태조’임을 알 수 있다.
- ③ 중세 국어의 상대 높임법에서 대표적인 것은 아주낮춤의 ‘후라체’와 아주 높임의 ‘후쇼셔체’이다. ‘아루쇼셔’에는 ‘후쇼셔체’가 쓰여 듣는 상대를 높이고 있다.
- ④ ‘-잇-’은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이고, ‘-가-’는 판정 의문문에 쓰이는 어미이다. 따라서 ‘-잇가’는 상대 높임 표현과 의문 종결 표현이 사용된 것이다.

4 근대 국어의 특징

보기

구개 음화(겹달>겹질) ‘ㄴ’계 합용 병서 사용
 [첫박지] 무는 껍질 벗겨 동글노 기는 **뭍**음디로 **뽕**고 비추
 모음 조화 파괴 무숨>무움>무음>마음, 모음 조화 파괴, ‘ㄷ’소멸
 와 갓은 적중이 뽕어 물에 당고고 외는 여름에 저릴 적 소금물을
 거둬 적가 **ㄴ**계 합용 병서 사용 원소 모음화 단모음화 ×
 쓸혀 더운 김에 붓고 (들>물)
 ‘ㄷ’계 합용 병서

— 『규합총서』

[현대어 풀이]
 [쉬박지] 무는 껍질 벗겨 동글거나 길거나 마음대로 썰고, 배추와 갓은 적당히 썰어 물에 담그고 오이는 여름에 절일 적에 소금물을 끓여 더운 김에 붓고

[정답해설] ‘갓슨’은 ‘갓+은’으로 앞말에 종성 ‘ㅅ’을 적고 뒷말의 초성에도 앞말의 종성 ‘ㅅ’을 내려적는 거듭 적기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무는’에는 모음 ‘ㅜ’ (아래아)가 사용되었다. 참고로 근대 국어에서는 ‘ㅏ’, ‘ㅓ’ 등의 표기가 모두 사라졌지만 음가가 소멸된 ‘ㅜ’는 여전히 사용되었다.
- ② ‘무음’은 ‘무숨>무움>무음>마음’으로 변하면서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인 모음 조화가 파괴되었다.
- ③ ‘뽕고’에서 ‘ㅃ’은 음절의 첫소리에 자음이 둘 이상 있는 것으로 어두 자음군에 해당한다. 어두 자음군은 ‘뽕고’가 ‘썰고’가 된 것처럼 현대 국어에서는 된소리로 변했다.
- ⑤ ‘적’의 현대 국어가 ‘적’인 것으로 보아 ‘적’은 ‘ㅈ’과 같은 이중 모음이 ‘ㅈ’와 같은 단모음으로 바뀌는 단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규합 총서

『규합총서』는 작자를 알지 못한 채 필사본 또는 목판본으로 전해져 왔다. 그러다가 1939년에 발견된 『빙허각전서(憑虛閣全書)』의 제1부작으로 밝혀졌다. 현재 목판본 1책, 총 29장으로 된 가람문고본과 필사본 2권 1책으로 된 부인필지 1권 1책, 총 68장으로 된 국립중앙도서관본, 필사본 6권으로 된 정양완(鄭良婉) 소장본 등이 전해진다.

이 책은 저자가 서문에서 “이 모두가 양생하는 선무(先務, 먼저 힘써야 할 것)요, 치가(治家, 집안을 다스리는 것)하는 요법이라 진실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요, 부녀가 마땅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듯이, 일상생활에서 요긴한 생활의 슬기를 적어 모은 것이다.

이 책은 「주사의(酒食議)」, 「봉임칙(縫紉則)」, 「산가락(山家樂)」, 「청낭결(靑囊訣)」, 「술수략(術數略)」 등으로 나뉘어 기록되어 있다.

「주사의」에는 장 담그기, 술 빚기, 밥·떡·과줄·반찬 만들기 등이 수록되어 있다. 「봉임칙」에는 옷 만드는 법, 물들이는 법, 길쌈, 수놓기, 누에치기 등과 그릇 때우는 법, 불 켜는 등의 모든 잡방이 수록되어 있다. 「산가락」에는 밭을 갈고 가꾸는 법에서부터 말, 소, 닭을 기르는 법 등의 농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청낭결」에는 태고 및 아기 기르는 요령과 구급방, 약물금기 등이 적혀 있다. 「술수략」에는 진택, 정거(淨居, 거처를 깨끗이 함)하는 법과 부적과 주술로 마귀를 쫓는 일체의 속방이 적혀 있다.

『규합총서』는 내용을 자세하고 분명하게 서술하였을 뿐 아니라, 인용한 책 이름을 각 사항에 작은 글씨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부가하며 신중이라 하여, 각 항목 끝에는 자신이 직접 실행해 본 결과 등을 작은 글씨로 밝혀 놓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읽어 보고 실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책은 필사본으로 전해져 오는 조리 종류의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것으로 우리의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이 자못 컸다.

이회

본문 78~79쪽

01 ③ 02 ① 03 ② 04 ② 05 ①

01 단어의 의미 관계 파악 ▶ 핵심 개념 9

보기

이것은 어니 ㉠양지귀 혹은 ㉡능달쪽 외따른 산 옆 은댕이 예데
 국수 산비탈에 턱이 저 평평한 곳 언저리
 가리밭에서 / 하로밤 ㉢보오한 흰 김 속에 접시귀 소기름불이 ㉣뿌
 산의 맨 꼭대기에 있는 오래된 비탈길
 우현 부엌에 / 산명에 같은 분들을 타고 오는 것이다 / 이것은 아득
 전설상의 커다란 뱀, 이무기 국수를 뽑아내는 물
 한 냇날 한가하고 즐겁든 세월로부터 / 실 같은 봄비 속을 타는 듯
 한 녀름별 속을 지나서 들쿠레한 구시월 갈바람 속을 지나서 / 대
 대로 ㉤나며 ㉥죽으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으젓한
 중 달고 구수하고 시원한
 마음을 지나서 텅텅한 꿈을 지나서 / 지붕에 마당에 우물 둔덕에
 함박눈이 폭폭 쌓이는 여늬 하로밤 / ㉦아배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배 앞에는 ㉨왕사발에 아들 앞에는 ㉩새끼 사발에 그득히
 사리워 오는 것이다. - 백석, 「국수」

답거

▶ 능달 : 응달. 별이 잘 들지 아니하는 그늘진 곳

[정답 해설] ㉢ ‘나며’는 ㉥ ‘죽으며’의 반의어로 문맥상 ‘생명체가 태어나며’의 뜻으로 쓰였다. ‘생존하며’는 ‘살아 있거나 살아남으며’의 뜻이므로 ‘나며’와 의미상 차이가 있는 단어이다.

오답 풀이

- ① ㉠ ‘양지’는 ‘별이 바로 드는 곳’을, ㉡ ‘능달’은 ‘별이 잘 들지 아니하는 그늘진 곳’을 의미하므로 ‘양지’와 ‘능달’은 별의 유무라는 기준에 의해 서로 반의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 ‘보오한’과 ㉣ ‘뿌우현’은 모두 ‘연기나 안개가 낀 것처럼 선명하지 못하고 조금 하얀’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미묘한 의미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아배’는 ‘자녀를 둔 남자를 자식에 대한 관계로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고 ㉥ ‘아들’은 ‘남자로 태어난 자식’을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아배’와 ‘아들’은 모두 [남성]이라는 공통된 자질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 ‘왕사발’은 큰 국그릇을 뜻하는 말이고, ㉧ ‘새끼 사발’은 작은 국그릇을 뜻하는 말이므로 둘 다 의미상 ‘그릇’에 포함되는 하위어라고 할 수 있다.

02 단어의 의미 관계 파악 ▶ 핵심 개념 9

[정답 해설] ‘밥’, ‘진지’, ‘수라’는 모두 ‘사람이 끼니로 먹는 음식’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나타내는 말로 유의어이지만, ‘진지’는 어른이 드시는 밥, ‘수라’는 임금에게 올리는 밥을 뜻하여 ‘밥’과는 내포적 의미나 정서적 의미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예쁜 아가씨’는 자연스럽지만 ‘예쁜 남자’는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어떤 단어가 배열된 문맥 안에서 얻는 연상 의미 곧 ‘연어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에서 설명하는 유의 관계와는 관련이 없다.
- ③ ‘불이 붙어 번지다.’라는 뜻의 ‘타다’와 ‘탈것에 올라 몸을 싣다.’라는 뜻의 ‘타다’는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동음이의어일 뿐 의미상 아무 관련이 없다.
- ④ 우리말로 색깔을 나타낼 때 ‘빨강다’, ‘노랑다’, ‘파랑다’, ‘하양다’, ‘까맣다’ 등의 색채어를 사용하지만 이들 어휘들은 지시하는 색깔이 다르므로 유의 관계로 볼 수 없다.
- ⑤ 동물을 지칭할 때 ‘참새’, ‘까치’, ‘독수리’ 등은 ‘날짐승’, ‘소’, ‘토끼’, ‘사자’ 등은 ‘길짐승’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의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의 예로 볼 수 있다.

03 표준 발음법의 적용 ▶ 핵심 개념 32

보기

- ㉠ 받침 ‘ㄷ, ㅌ(ㅍ)’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되는 경우
구개음화의 조건 ①
 예는, [즈, ㅈ]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 받침 ‘ㄷ, ㅌ(ㅍ)’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
구개음화의 조건 ②
 예는, [즈, ㅈ]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 받침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 ㉠과 ㉡은 표준 발음법 17항, ㉣은 [불임]의 내용임.

[정답 해설] ㉡에서 ‘같이’는 형용사 ‘같다’의 어간 ‘갈-’에 부사화 접미사 ‘-이’가 붙어 부사로 파생된 것이다. 따라서 ‘같이’를 [가치]로 발음하는 것은 ㉠의 조건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의 조건에 따른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팔이대파치다’는 어근 ‘팔’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된 경우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③ ‘미달이[마다지]’는 동사의 어간 ‘미달-’에 명사화 접미사 ‘-이’가 붙어 명사로 파생된 경우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④ ‘해돋이[해도지]’는 어근 ‘해’와 동사의 어간 ‘돋-’에 명사화 접미사 ‘-이’가 붙어 명사로 파생된 경우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⑤ ‘달하[다치다]’는 동사의 어간 ‘달-’의 받침 ‘ㄷ’ 뒤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룬 것으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04 시간 표현의 적용 핵심 개념 23

보기 1

국어에서는 시간 표현은 시제와 동작상이라는 문법 요소로 실현된다. 시제란, 화자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말하고자 하는 사건의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일어났는지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다. 동작상이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완결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로,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진행상과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표현하는 완료상이 있다.

보기 2

- ㉠ 나는 급하게 밥을 먹어 버렸다.
- ㉡ 아버지께서 형을 데리고 오신다. → 현재, 진행상
- ㉢ 어제 많은 사람들이 눈을 쓸고 있었다.
- ㉣ 작은 상자가 책상 위에 놓여 있을 것이다.
- ㉤ 내일은 기차가 넓은 광야를 달리고 있겠다.

정답 해설 ㉠에서 동사 '오신다'의 '-ㄴ-'은 현재 시제를 실현하는 선어말 어미이므로, ㉡은 현재 시제이다. 그러나 ㉡은 아버지가 형을 데리고 오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완료상이 아닌 진행상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에서 '버렸다'의 '-었-'은 과거 시제를 실현하는 선어말 어미이므로, ㉠은 과거 시제이다. 그리고 ㉠은 밥을 먹는 동작이 완결된 상황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완료상에 해당한다.
- ③ ㉢에서 '있었다'의 '-었-'은 과거 시제를 실현하는 선어말 어미이고 '어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어이므로, ㉢은 과거 시제이다. 그리고 ㉢은 눈을 쓰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진행상에 해당한다.
- ④ ㉣에서 '있을 것이다'의 '-을 것-'은 미래 시제를 실현하는 말이므로, ㉣은 미래 시제이다. 그리고 ㉣은 상자를 놓는 동작이 완결된 상황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완료상에 해당한다.
- ⑤ ㉤에서 '있겠다'의 '-겠-'은 미래 시제를 실현하는 선어말 어미이고 '내일'은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어이므로, ㉤은 미래 시제이다. 그리고 ㉤은 기차가 달리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진행상에 해당한다.

05 중세 국어의 상대 높임법의 적용 핵심 개념 35

보기 1

상대 높임법은 상대에 따라 종결 표현을 달리하여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중세 국어의 상대 높임법은 아주낮춤인 하라체, 예사 높임인 하야썸체, 아주높임인 하쇼썸체 그리고 반말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하라체와 하쇼썸체의 상대 높임법에 따른 종결 어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종류	하라체	하쇼썸체
평서형	-다	-이다
의문형	-녀(1, 3인칭) -ㄴ다, ㅁ다(2인칭) -ㄴ가, ㅁ가(간접)	-니잇가
명령형	-라	-쇼썸
청유형	-저	-사이다

보기 2

- 네 겨집 그려 ㉠ (네가 아내가 그리워서 갔느냐?)
하라체, 2인칭 의문문
- 道를 일우샤 날 ㉡ (도를 이루시어 나를 구하여 주소서.)
하쇼썸체, 명령문

정답 해설 <보기 2> 첫 번째 문장의 현대어 풀이를 보면 서술어 '갔느냐?'는 아주낮춤에 2인칭 '너'에게 묻는 의문문이다. 따라서 ㉠에는 '하라체'의 의문형 종결 어미 '-ㄴ다'가 사용된 '가던다(가-+ㄴ-더-+ㄴ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보기 2> 두 번째 문장의 현대어 풀이를 보면 서술어 '구하여 주소서.'는 아주높임에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문이다. 따라서 ㉡에는 '하쇼썸체'의 명령형 종결 어미 '-쇼썸'이 사용된 '救하쇼썸(救하-+쇼썸)'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1 ③ 02 ① 03 ③ 04 ③ 05 ④

01 파생어의 특성 이해 ▶ 핵심 개념 7

보기

- ㉠ 불현듯 어린 시절의 ^{뜻: '미숙한', '깊지 않은'의 뜻} 풋사랑이 떠올랐다.
 ㉡ 준호는 설익은 과일을 먹고 배탈이 났다.
 ㉢ 동생이 어제 아침에 ^{뜻: 동사에 붙는 접두사} 덧니를 두 개나 뽑았다.
 ㉣ 하늘 ^{뜻: 명사와 동사에 다 붙는 접두사} 높이 나는 비행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 나는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동사 '나는'을 꾸미는 부사} 일찍이 등교했다.
 ㉥ 나는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일찍(부사)+-이(접미사) → 부사} 일찍이 등교했다.

[정답해설] '덧-'은 '덧니', '덧버선', '덧신'과 같이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거듭된' 또는 '겹쳐 신거나 입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쓰일 뿐 아니라, '덧대다', '덧붙이다'와 같이 일부 동사 앞에 붙어 '거듭' 또는 '겹쳐'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도 쓰인다.

오답 풀이

- ① '풋사랑'의 '풋-'은 몇몇 명사 앞에 붙어 '미숙한', '깊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② '설익다'의 '익다'가 동사이므로 '설-'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에 붙는 접두사이다.
 ④ ㉣에서 '높이'는 동사(용언) '나는'을 수식하고 있다. 따라서 '높이'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부사이다.
 ⑤ ㉤에서 '일찍이'는 부사 '일찍'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부사이다.

02 파생 명사와 동사의 명사형 구분 ▶ 핵심 개념 7

[정답해설] ①에서 ㉠의 '느낌'은 관형어 '차가운'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동사의 어간 '느끼-'에 접미사 '-(으)ㄴ'이 붙은 파생 명사이다. 그리고 ㉡의 '느낌'도 관형어 '갑갑한'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동사의 어간 '느끼-'에 접미사 '-(으)ㄴ'이 붙은 파생 명사이다.

오답 풀이

- ② ㉠의 '크기'는 관형격 조사 '의'가 없이 뒤에 오는 단어를 수식하는 관형어 '집'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동사의 어간 '크-'에 접미사 '-기'가 붙은 파생 명사이다. 그리고 ㉡의 '크기'는 부사 '매우'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동사의 어간 '크-'에 명사의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 '-기'가 붙은 동사의 명사형이다.
 ③ ㉢의 '민음'은 체언 '우리'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된 관형어 '우리의'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동사의 어간 '민-'에 접미사 '-음'이 붙은 파생 명사이다. 그리고 ㉣의 '민음'은 동사 '민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목적어를 앞에 두고 있으므로 동사의 어간 '민-'에 명사의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 '-음'이 붙은 동사의 명사형이다.

- ④ ㉠의 '달리기'는 관형어 '적당한'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동사의 어간 '달리-'에 접미사 '-기'가 붙은 파생 명사이다. 그리고 ㉡의 '달리기'는 부사 '쏟알알'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동사의 어간 '달리-'에 명사의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 '-기'가 붙은 동사의 명사형이다.
 ⑤ ㉢의 '웃음'은 관형어 '해맑은'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동사의 어간 '웃-'에 접미사 '-음'이 붙은 파생 명사이다. ㉣의 '웃음'은 부사어 '크게'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동사의 어간 '웃-'에 명사의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 '-음'이 붙은 동사의 명사형이다.

03 파생어의 형성 파악 ▶ 핵심 개념 7

보기

ㄱ. '보다'의 파생어 : '엿보다', '보이다'

예 • 그가 옆 사람의 신문을 ^{엿-+보다 보+-(이)-+다} 보^다다.

• 그가 옆 사람의 신문을 엿보다.

• 옆 사람의 신문이 ^{엿-: '몰래'의 뜻을 더함.} 그에게 보^다이다.• 이웃의 ^{보-: '피동'의 뜻을 더함.} 뜻을 더함.

ㄴ. '선생'의 파생어 : '선생님'

예 • 김 선생, 이리 와요. / • 김 ^{선생+님} 선생님, 이리 오세요.

ㄷ. '지우다'의 파생어 : '지우개'

예 이 지우개^{지우-+개}로 공책에 쓴 글씨를 ^{지우-: '사람' 또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들.} 지워라.

ㄹ. '웃다'의 파생어 : '웃음', '헛웃음'

예 • 그가 ^{웃-+음 헛+웃음} 웃었다. / • 그가 웃음을 지었다.

• 그가 헛웃음을 지었다.

• 헛웃음: '이유 없는', '보람 없는'의 뜻을 더함.

[정답해설] ㄷ의 '지우개'는 동사 '지우-'에 접미사 '-개'가, ㄹ의 '웃음'은 동사 '웃-'에 접미사 '-음'이 결합하여 명사로 파생되었다. 그러나 <보기>의 예에서 접두사 '엿-'과 '헛-'은 단어의 품사를 바꾸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ㄱ의 '엿보다'는 접두사 '엿-'이 결합되어 '보다'에 '몰래'의 뜻이 더해졌다. ㄹ의 '헛웃음'은 접두사 '헛-'이 결합되어 '웃음'에 '이유 없는'의 뜻이 더해졌다.
 ② ㄱ에서 '보다'가 사용된 문장은 능동 표현이 나타나지만, '보이다'가 사용된 문장은 피동 표현이 나타난다. 또한 ㄴ에서 '김 선생, 이리 와요'에는 주체 높임의 표현이 나타나지 않으나 '김 선생님, 이리 오세요'에서는 주체를 높인 표현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접미사가 붙은 파생어는 문장의 표현을 바꿀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④ ㄹ의 '헛웃음'은 '웃다'에 접미사 '-음'이 붙은 뒤 접두사 '헛-'이 다시 결합된 것이다.
 ⑤ ㄷ의 '지우개'는 어근 '지우-'에 접미사 '-개'가 결합하며 동사에서 명사로 품사가 바뀌고 의미도 '글씨나 그림 따위를 지우는 물건'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ㄹ의 '웃음'은 '얼굴을 활짝 펴거나 소리를 내다'라는 의미는 변화가 없이 동사에서 명사로 품사만 바뀌었다.

04 관형절에 대한 이해 8 핵심 개념 20

보기 |

관형절은 안은문장 안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절로서, ‘-(으)ㄴ, -는, -(으)르, -던’ 등이 붙어서 만들어진다. 대체로 ‘관형절의 서술어에서는 종결 어미가 나타나지 않으며, 때에 따라 관형절의 주어는 생략되기도 한다.’

• 이것은 ㉠영희가 즐겨 부르는 노래이다. ‘부르-’+‘-는’

• 나는 ㉡넓은 바다를 보면 가슴이 탁 트인다. ‘넓-’+‘-은’

• 어제 ㉢우리는 음식을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먹-’+‘-을’

• ㉣그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모으-’+‘-ㄴ’

[정답 해설] ㉠의 ‘넓은’은 용언 ‘넓-’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의 ‘모은’은 용언 ‘모으-’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형태이다.

오답 풀이

- ① ㉠~㉣ 모두 서술어에 관형사형 어미만 나타날 뿐, 종결 어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의 ‘부르는’은 용언 ‘부르-’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의 ‘먹을’은 용언 ‘먹-’에 관형사형 어미 ‘-을’이 결합하여 관형절이 되었다.
- ④ ‘넓은’은 ‘바다가’라는 주어가 생략된(→ (바다가) 넓다) 관형절이다.
- ⑤ ㉣의 주어는 ‘그는’으로(→ 그는 (재산을) 평생 모았다), 전체 문장의 주어인 ‘그는’과 일치한다.

05 겹받침의 표준 발음 이해 8 핵심 개념 32

보기 |

ㄱ. 겹받침 ‘ㄹ’, ‘ㄷ’, ‘ㄹ’, ‘ㄷ’, ‘ㄹ’,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ㄴ]으로 발음한다. 넉[넉], 앞대[안따], 넓대[넙따], 값[갑]

ㄴ. 다만, ‘발-’은 자음 앞에서 [ㅃ]으로 발음하고, ‘넓-’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 넓-죽하다[넙죽하다], 넓-둥글다[넙둥글다]

ㄷ. 어간 받침 ‘ㄹ’, ‘ㄷ’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넙[넙], 할대[할따]

ㄴ.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넙[넙], 앞대[안따], 값[갑]

ㄷ. 받침 ‘ㄱ(ㄱ), ㄷ, ㅃ(ㄷ), ㅈ(ㅈ)’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는 두 음을 합쳐서 [ㅋ, ㅌ, ㅍ, ㅊ]으로 발음한다. 넙히대[넙히다], 앞히대[안치다]

[정답 해설] ‘넙고’는 ㄱ과 ㄴ에 따라 [넙꼬]로 발음해야 한다. ㄴ에서 ‘넙-’이 [넙]으로 발음되는 것은 합성어나 파생어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넙히고’는 ㄱ과 ㄴ에 따라 [넙히]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된 경우이다.
- ② ‘넙게’의 받침 ‘ㄷ’은 ㄱ에 따라 [ㄷ]로 발음해야 하며, 받침 ‘ㄷ’ 뒤에 어미 ‘-게’의 첫소리가 ‘ㄱ’이므로, ‘-게’는 ㄴ에 따라 된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 ③ ‘넙히’의 받침 ‘ㄷ’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이다’와 결합되는 경우이다.
- ④ ‘넙지’의 ‘넙-’은 자음 앞에 있으므로 ㄴ에 따라 [넙]으로 발음해야 하며, 받침 ‘ㄷ’ 뒤에 어미 ‘-지’의 첫소리가 ‘ㄱ’이므로, ‘-지’는 ㄴ에 따라 된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01 ③ 02 ④ 03 ③ 04 ③ 05 ④

01 합성어의 의미상 분류 ▶ 핵심 개념 7

보기 1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로, 의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ㄱ. 두 어근이 대등하게 결합하여 두 어근의 의미에는 변화가 없음. → 대등 합성어

예 '논'과 '밭'이 결합한 '논밭'은 '논과 밭'을 의미한다.

ㄴ. 두 어근 중 한쪽 어근이 다른 한쪽 어근에 의미를 더해 줌.

예 '벼락'과 '부자'가 결합한 '벼락부자'는 '벼락'이 '부자'에 의미를 더해 '갑자기 된 부자'를 의미한다. → 종속 합성어
매우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ㄷ. 두 어근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는 제3의 의미를 나타냄.

예 '돌'과 '부처'가 결합한 '돌부처'는 '감각이 둔하고 고집이 세며 감정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의미한다. → 융합 합성어

[정답 해설] '보슬비'에서 '보슬'은 부사 '보슬보슬'에서 온 말로 '눈이나 비가 가늘고 성기게 조용히 내리는 모양'을 의미한다. 어근 '보슬'이 뒤에 오는 어근 '비'에 이와 같은 의미를 더해 준 것이므로 '보슬비'는 ㄴ에 속한다.

오답 풀이

- ① '남'과 '여'가 결합한 '남녀'는 본래 두 어근의 의미를 모두 유지하고 있으므로 ㄱ에 해당한다.
- ② '큰집'은 '크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고, '집'이 결합한 형태이다. 이 단어는 두 어근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ㄷ에 속한다.
- ④ '손'과 '수건'이 결합한 '손수건'은 앞의 어근인 '손'이 뒤에 오는 어근 '수건'에 의미를 더해 주어 '몸에 지니고 다니며 쓰는 얇고 자그마한 수건'을 의미하므로, ㄴ에 속한다.
- ⑤ '높푸르다'는 '높고 푸르다'는 의미로, '높'과 '푸르다'의 두 어근이 본래의 뜻을 유지하며 결합되었으므로 ㄱ에 해당한다.

02 용언의 활용 적용 ▶ 핵심 개념 13

보기 1

선생님: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를 불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불규칙 활용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ㄱ.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 짓-+-어 → 지어(규칙 활용: 짓-+-어 → 씻어)
'ㅈ' 불규칙, 'ㄷ' 불규칙, 'ㅂ' 불규칙, '르' 불규칙, '우' 불규칙

ㄴ.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 이르[至]-+-어 → 이르러
'어' 불규칙, '리' 불규칙, '너' 불규칙
(규칙 활용: 치르-+-어 → 치러)

ㄷ.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 활용: 하얗-+-아 → 하얗게
'ㅎ' 불규칙
(하얗[규칙 활용: 좋-+-아 → 좋아])

그럼 수행 평가로 ㄱ~ㄷ의 경우처럼 활용을 하는 단어가 포함된 예문을 만들어 오세요.

[정답 해설] '흘러서'는 '흐르-+-어서'로 어간의 '르'가 모음 어미 앞에서 'ㄹ'로 변하는 활용이다. 이는 '르' 불규칙 활용으로 어간이 변하는 예에 해당하므로 ㄴ이 아닌 ㄱ의 경우에 속한다.

오답 풀이

- ① '들었다'는 '들-+-었-+-다'로 분석할 수 있다. 동사가 활용할 때 어간이 '들-'에서 '들-'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ㄷ'이 모음 어미 앞에서 'ㄹ'로 변하는 현상을 'ㄷ'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 ② '이어서'는 '잇-+-어서'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보기>에 제시된 '잇-+-어 → 지어'와 같은 'ㅈ' 불규칙 활용의 예로, 어간이 바뀐 것이다.
- ③ '푸르렀다'는 '푸르-+-었-+-다'로 분석할 수 있다. 이처럼 어간이 '르'로 끝나는 용언에 결합된 모음 어미 '어'가 '리'로 바뀌는 현상을 '러' 불규칙 활용이라 한다. '러' 불규칙 활용은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다.
- ⑤ '노래서'는 '노랗-+-아서'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보기>에 제시된 '하얗-+-아 → 하얗게'와 같은 'ㅎ' 불규칙 활용의 예로, 어간과 어미 모두 바뀐 것이다.

03 필수적 부사어의 이해 ▶ 핵심 개념 17

보기 1

부사어는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성분의 하나이므로 대개 문장을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어떤 서술어는 문장의 성립에 반드시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 한다. 동일한 '체언+격 조사' 구성의 부사어라도 필수적 부사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보기 2

ㄱ. 이/그림은/실물과/똑같다. → 관형어+주어+부사어+서술어

ㄴ. 요즘/날씨는/춥구하기에/적합하다. → 관형어+주어+부사어+서술어

ㄷ. 나는/도서관에서/옛/친구를/만났다. → 주어+부사어+관형어+목적어+서술어

ㄹ. 그는/친구의/딸을/며느리로/삼았다. → 주어+관형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

[정답 해설] ㄱ의 '실물과', ㄴ의 '춥구하기에', ㄹ의 '며느리로'를 생략하면 각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들은 모두 '필수적 부사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ㄷ에서 '도서관에서'를 생략해도 '나는 옛 친구를 만났다.'가 되어 문장이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는 부사어이지만 문장의 성립을 위해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필수적 부사어'는 아니다.

04 사동문의 특성 파악 핵심 개념 24

보기 1

주동문은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는 문장을, 사동문은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문장을 의미한다.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려면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사동 접미사를 붙이거나, '-게 하다, -시키다'를 결합하는 방법이 있다.

방법 ①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만드는 방법 ①

예 ㄱ. 아기가 우유를 먹는다. * 사동 접미사: '-아-, -히-, -리-, -기-, -우-, -구-, -추-'

→ (어머니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인다.

ㄴ. 연우가 노래를 부른다. 동사의 어근 '부르-' + 사동 접미사 '-아-'

→ (선생님이) 연우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다.

ㄷ. 직원이 회사에 복직했다. 동사의 어근 '복직-' + '-게 하다'

→ (사장이) 직원을 회사에 복직시켰다. 명사 '복직' + '-시키다'

[정답해설] '어머니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인다.'는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두 가지로 해석되지만, ㄴ처럼 '-게 하다'를 붙여 사동문으로 만들면 '어머니가' 아기에게 우유를 먹게 한다.'가 되어 간접 사동으로만 의미가 해석된다. 따라서 사동 접미사를 붙였을 때와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아기에게, 연우에게, 직원을'처럼 부사어나 목적어로 바뀌고 있다.
- ②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어머니, 선생님, 사장'처럼 새로운 주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ㄴ의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어도 '노래'를 부르는 주체가 '연우'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 ⑤ '복직하다'는 '-시키다'가 아닌 '-아-,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의 사동 접미사를 붙여 사동 표현으로 만들 수 없다.

05 중세 국어의 특징 이해 핵심 개념 35

보기 1

나랏 말싸미 中(중)國(국)에 달아 文(문)字(자)중(중)와로 서르 소(소)뎡(뎡)디 아니홀
 씨 이런 전초로 어(어)린 百(백)姓(성)이 니르(니르)고져 홀 배 이셔도 막춤내 제
 브들 시러 퍼디 몬홀 노미 하니라 내 이룰 爲(爲)왕(왕)하야 어(어)엿비(엿비) 너(너)겨
 새로 스물여들 字(자)중(중)을 밍(밍)노니 사름마다 히여 수비 니(니)겨 날로 뿌
 메 便(便)安(안)한(한)코 호고져 홀 썩(썩)르미니라

△: 의미의 이동 - 「훈민정음 언해」, 세조 5년(1459)
 ○: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

[정답해설] '밍노니'의 기본형은 '밍굴다'로, 이는 '밍굴-(어간)+-느-(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오-(1인칭 주체와 호응하는 선어말 어미)+-니(어미)'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중세 국어에서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시-'가 쓰였는데 '밍노니'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말싸+이'를 '말싸미'라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보아 중세 국어에서는 연철 표기(이러 적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브들'은 '뵤(뵤)+을'의 형태로 분석되며, '뵤'의 'ㅄ'에서 어두 자음군을 사용하고 있다. 중세 국어에서 초성에 오는 어두 자음군 'ㅄ'의 음가는 'ㅂ'과 'ㄷ'이 모두 발음되었다.
- ③ '전초'는 '까닭'이라는 뜻으로, 오늘날에는 사용되지 않는 사어(死語)에 해당한다.
- ⑤ '뿌메'는 '쁘(어간)+-음(명사형 어미)+에(조사)'로 분석할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는 명사형(명사형 어미 '-음/움')과 파생 명사(파생 접미사 '-ㅁ')가 형태적으로 구분되어 쓰였다.

지식 더하기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점

구분	중세 국어	현대 국어	차이점
음운	니르고져	이르고자	• '니' → '이' : 'ㅣ' 모음 앞에서 'ㄴ' 음운이 'ㅇ'으로 바뀜. • 어미 '-고져' → '-고자' : 어미 모음의 양성화를 따름.
	브들	뵤들	어두 자음군이 소실되고 된소리로 바뀜.
	퍼디	퍼지	'-디' → '-지' : 구개음화의 영향
	스물	스물	'-ㅄ' → '-ㅂ' : 원순 모음화의 영향
문법	동귀에	중국과	중세 국어에는 비교나 기준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에'가 쓰임.
어휘	어린	나이가 적은	어리석은 → 나이가 적은 : 의미의 이동
	노미	놈이	보통 사람 → 남자를 낮추어 가리키는 말 : 의미의 축소
	어엿비	어여쁘게	가엿게 → 예쁘게 : 의미의 이동

01 ③ 02 ④ 03 ④ 04 ⑤ 05 ①

01 음운 변동의 이해 ▶ 핵심 개념 3.4.5

선생님 :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사라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럼 다음의 예는 각각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설명해 볼까요?

- ㄱ. 낱 → [낱], 옳 → [옳], 꼰 → [꼰]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ㄴ. 좋은 → [조은], 많아서 → [마나서] 'ㅎ' 탈락(탈락)
 ㄷ. 방하 → [바카], 앞도록 → [안토록] 거센소리되기(축약)

[정답 해설] ③에서 '낱고'가 [나코](ㅎ+ㄱ → ㅋ)로 발음되거나 '법학'이 [버팍](ㅂ+ㅎ → ㅍ)으로, '옳지'가 [올치](ㅎ+ㅅ → ㅈ)로 발음되는 것은 거센소리되기 현상의 예로 ㄷ과 같은 자음 축약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한 음운이 완전히 없어지는 현상은 '탈락' 현상이다. 그러나 ㄱ은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에 해당한다.
 ② ㄴ은 음운의 변동 중 '탈락'과 관련이 있다. 또한 '막알'은 [막닐('ㄴ' 첨가) → 망닐(비음화(동화))], '물엿'은 [물녜('ㄴ' 첨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물련(유음화(동화))]의 음운 변동이 나타나므로, ㄴ과 관련이 없다.
 ④ ㄱ은 교체 현상이기는 하지만 예사소리가 거센소리로 바뀌지 않았고, ㄷ은 예사소리가 거센소리로 바뀌기는 했지만 축약 현상에 해당한다.
 ⑤ ㄱ을 통해 교체 현상, ㄴ을 통해 탈락 현상을 확인할 수 있지만, 첨가 현상의 예는 제시되지 않았다. ㄷ은 축약 현상과 관련된다.

02 품사 통용의 이해 ▶ 핵심 개념 11.12

선생님 : '단어들 가운데에는 형태는 같지만 하나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함께 보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품사의 통용'이라고 합니다. 품사의 통용이 나타날 때에는 품사의 특징과 개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체언은 조사와 결합한다든지, 수식언은 다른 말을 수식하며 격 조사가 붙을 수 없다는 등의 품사별 특징을 대입해 보면 품사의 통용이 나타난 단어의 품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품사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볼까요?

- (1) ㄱ. 그 학생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
 ㄴ. 열 사람이 한 마디씩만 해도 열 마디이다.
 (2) ㄱ. 내일이 내 생일이다.
 ㄴ.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다시 합시다.
 (3) ㄱ.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것이다.
 ㄴ. 나도 너만큼 땀을 흘릴 수 있어.

[정답 해설] (2)의 ㄴ에서 '내일'은 뒤에 오는 '다시'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용언인 '합시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따라서 ④의 대답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1)의 ㄱ에서 '열'은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였으므로 체언임을 알 수 있으며,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수사이다.
 ② (1)의 ㄴ에서 '열'은 뒤에 오는 명사(체언) '사람'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형사에 속하며, 그중에서도 수량을 나타내는 수 관형사이다.
 ③ (2)의 ㄱ에서 '내일'은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하여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체언 중 명사에 해당한다.
 ⑤ (3)의 ㄱ에서 '만큼'은 '노력한'이라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므로 체언이며, 그중에서도 다른 말에 기대어 쓰는 의존 명사에 해당한다. (3)의 ㄴ에서 '만큼'은 체언(대명사)인 '너' 뒤에 결합하여 쓰이므로 조사이다.

03 서술어의 자릿수 파악 ▶ 핵심 개념 16

보기 | 서술어 중에는 '그녀는 예쁘다.'처럼 다른 성분은 필요로 하지 않고 주어 하나만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 반면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처럼 주어 이외에 목적어나 부사어, 또는 보어를 필수적으로 더 요구하는 서술어를 ㉡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주었다.'라는 문장에 사용된 '주다'는 주어와 목적어, 부사어의 세 가지 문장 성분을 요구하므로 ㉢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

[정답 해설] 주어 '민호는'과 목적어 '점심을'이 필수 성분이므로 '먹었다'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된다. 즉, ④는 ㉢가 아닌 ㉡의 예에 해당한다. 이 문장에서 부사어인 '혼자'는 생략할 수 있는 문장 성분이다.

오답 풀이

- ① '새가'라는 주어만 필요로 하므로 한 자리 서술어이다.
 ② 주어인 '우정은'과 부사어 '보석과도'를 필요로 하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③ 주어인 '그는'과 보어인 '선생님이'가 있어야 완전한 문장이 되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⑤ 주어인 '사람들이'와 부사어 '우리에게', 목적어 '친절을'을 필요로 하므로 세 자리 서술어이다.

04 이어진문장의 특징 파악 핵심 개념 19

보기 1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예

ㄱ. 산은 높[㉠] 골짜기는 깊다. → 나열

ㄴ. 눈이 내리지[㉡] 쌓이지는 않는다. → 대조

ㄷ. 오늘은 밥[㉢]이나 죽을 먹을 것이다. → 선택
오늘은 밥을 먹을 것이다. + 오늘은 죽을 먹을 것이다.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예

ㄹ. 가을이 오[㉣] 단풍이 든다. / 단풍이 들[㉤] 가을이 온다.

ㅁ. 우리는 물고기를 잡[㉥]어 냇가로 갔다. → 의도(목적) → 조건, 가정

ㅂ. 나는 늦게 일어나[㉦] 학교에 지각을 했다. → 원인

정답해설 ㅁ은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으러'에 의해 연결된 문장이지만, ㅂ은 '조건'이 아닌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서'에 의해 연결된 문장이다.

오답 풀이

- ㄱ은 나열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고'로, ㄴ은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만'으로 두 출문장이 이어지고 있다.
- ㄴ은 '눈이 내린다.'와 '눈이 쌓이지는 않는다.'라는 두 문장이 연결된 것으로, 주어 '눈이'를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다. ㅂ 역시 '나는 늦게 일어났다.'와 '나는 학교에 지각을 했다.'라는 두 문장이 연결된 것으로, 주어인 '나는'을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다.
- ㄷ을 나누면 '오늘은 밥을 먹을 것이다.'와 '오늘은 죽을 먹을 것이다.'가 된다. ㄷ은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인 '이나'를 사용하여 두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만든 것이다.
- 연결 어미 '-면'은 일반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어떤 일에 대한 조건으로 말할 때 쓰인다. 따라서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든다.'는 '단풍이 들기 위한 조건'이 '가을이 오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것을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꾸어 '단풍이 들면 가을이 온다.'로 바꿀 경우, '가을이 오기 위한 조건'이 '단풍이 드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어 처음의 문장과 의미가 달라진다.

보기 2

• 갓 배달된 저녁 신문이 ㉠썩둑썩둑 오려져 있었다.

• 지난여름에는 수박 장사를 해서 ㉡짹짹하게 재미를 보았다.

• 그녀는 조금 ㉢해쓱하게 놀란 듯하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었다.

• 오래 걷다 보니 발이 부르터서 다리를 ㉣절뚝거리리는 사람이 많았다.

•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뚱뚱그려 말하자면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답해설 <보기 1>에서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 겹쳐 나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고 했다. ㉠의 '썩둑썩둑'은 'ㄱ' 받침 뒤에서 된소리인 'ㄷ'으로 발음되지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썩둑썩둑'이 아닌 '썩둑썩둑'이 올바른 표기이다.

오답 풀이

- ㉠은 뒤의 '잘'이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며, 'ㅂ' 받침 뒤에서 '짹'과 '짹'로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므로 '짹짹하게'로 써야 한다.
- ㉡은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두 모음 사이('ㅈ'와 'ㅡ')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제5항-1'의 규정에 따라 '해쓱하게'로 써야 한다.
- ㉢은 'ㄹ'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제5항-2'의 규정에 따라 '절뚝거리'는'으로 써야 한다.
- ㉤은 'ㅇ' 뒤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제5항-2'의 규정에 따라 '뚱뚱그려'로 써야 한다.

05 한글 맞춤법의 적용 핵심 개념 30

보기 1

〈한글 맞춤법〉

하나의 형태소 내부를 뜻함.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예** 소쩍새, 어깨, 오빠 등
→ 으름, 아끼다, 기쁘다, 깨끗하다, 어머하다, 해쓱하다, 기쁨 등
-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예 산뜻하다, 살쥔, 움짤 등 → 잔뜩, 훨씬, 담뿔, 몽땅, 엉뚱하다 등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예** 국수, 딱지 등)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예** 똑똑하다, 썩썩, 썩썩 등)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01 ① 02 ④ 03 ② 04 ② 05 ③

01 부사의 종류에 따른 구분 ▶ 핵심 개념 12

1 성분 부사 : 문장의 한 성분만을 꾸며 주는 부사. '정상 부사', '지시 부사', '부정 부사' 등이 있음.

특정 대상을 가리킴

(1) **정상 부사** :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 상태, 성질을 한정하여 꾸미는 부사 **예** 그는 자식을 모두 잘 키웠다.

2 문장 부사 :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

(1) **양태 부사** :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로 자리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움. **예** ㉠

(2) **접속 부사** : 앞의 체언이나 문장의 뜻을 뒤의 체언이나 문장에 이어 주면서 뒤의 말을 꾸며 주는 부사 **예** ㉡

[정답 해설] ①의 ㉠에 쓰인 '다행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면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담고 있으므로 양태 부사에 해당한다. ㉡의 '및'은 '가정'과 '지역'을 연결하는 접속 부사이다.

오답 풀이

- ② ①의 '바로'는 뒤에 오는 '그'를 꾸며 주고 있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 주는 성분 부사이다. ㉠의 '그러나'는 앞뒤 문장을 서로 상반된 의미(역접 관계)로 이어 주는 접속 부사이다.
- ③ ①의 '가장'은 뒤에 오는 '크다'를 꾸며 주는 성분 부사이다. ㉠의 '하고'는 '사과'와 '복숭아'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지만, 체언인 '사과'에 붙어 있으므로 접속 조사이다.
- ④ ㉠의 '데굴데굴'은 뒤에 오는 '굴러가다'를 수식하며 사물의 모양을 흉내 낸 의태 부사이다. ㉡의 '와'는 '철수'와 '영희'를 연결시키지만 체언인 '철수'에 붙어 있으므로 접속 조사이다.
- ⑤ ㉠의 '간절히'는 뒤에 오는 '원했다'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성분 부사이다. ㉡의 '아프나'는 형용사의 어간 '아프-'에 연결 어미 '-나'가 결합한 것이므로 품사는 형용사이다.

02 독립어의 쓰임 이해 ▶ 핵심 개념 17

보기

아들 : ㉠ 아버지, 저 용돈 좀 주세요.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명칭이 곧 독립어가 됨

아버지 : ㉡ 뭐, 용돈을 달라고? 준 지 얼마나 됐다고?

감탄사 놀라움을 나타내는 소리

아들 : 이번 달엔 돈 쓸 일이 많았어요. 참고서도 여러 권 샀고…….

어머니 : ㉢ 와, 네가 드디어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구나!

감탄사 뜻밖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내는 소리

아들 : ㉣ 아니, 언제는 제가 공부를 안 했나요?

감탄사, 놀라거나 감탄스러울 때, 또는 의아스러울 때 하는 말

어머니 :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네가 기특해서 하는 말이야.

아들 : 그러니까 아버지, 빨리 좀 주세요. ㉤ 예?

감탄사. 뒷사람에게 조르거나 사정할 때 쓰는 말

[정답 해설] ㉢의 감탄사 '아니'는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놀람이나 의아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쓰인 말이다.

오답 풀이

- ① 명사에 호격 조사 '아/야'가 붙으면 독립어가 된다. 다만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명칭이나 접미사 '-님'이 붙은 말에는 호격 조사가 붙지 않고 독립어로 쓰인다. ㉠은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명칭 '아버지'가 곧 독립어인 셈이다.
- ②, ③, ⑤ 감탄사가 곧 독립어가 되었다.

03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 핵심 개념 13

보기

선생님 : 동사와 형용사는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로 용언이라고 합니다. 동사와 형용사를 나눌 때 의미상으로 구분하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다음의 예를 보면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사와 형용사가 사용된 문장의 예]

동사	형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이 <u>핀다</u>. • 화장을 <u>하</u>었다. • 침대에서 <u>일어나</u>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이 <u>아름답</u>다. / *아름답<u>는</u>다. <small>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는'과의 결합</small> • *<u>예쁘</u>라 화장을 한다. <small>목적어 어미 '-(으)라'와의 결합</small> • *오늘부터 <u>착해</u>라.

(*는 문법에 어긋난 부분을 표시한 것임.)

[정답 해설] <보기>에서 동사의 예인 '화장을 하러 왔다.'에서는 용언인 '하다'와 '왔다'가 이어진 구조로 나타나지만, 형용사의 예로 용언과 용언이 이어진 구조는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시된 예를 가지고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기준으로서 용언과 용언이 이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형용사 뒤에도 용언이 이어질 수 있다. (예) 별이 예쁘게 빛난다.)

오답 풀이

- ① '핀다(피다)', '하러(하다)', '일어나라(일어나다)'는 모두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아름답다', '예쁘라(예쁘다)', '착해라(착하다)'는 모두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③ '하러'에서 '-러'는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로 동사와 연결되었을 때는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된다. 그러나 형용사 '예쁘다'에 '-러'를 붙이면 문법에 어긋난 문장이 된다.
- ④ 동사 '일어나다'는 명령형 어미 '-아라'가 붙어서 '일어나라'와 같이 쓰일 수 있지만, 형용사 '착하다'는 명령형 어미 '-아라'가 붙으면 '착해라'가 되어 문법에 어긋나게 된다. '어머니, 착해라.'와 같은 문장에서 '착해라'는 형용사 '착하다'에 감탄을 나타내는 '-다라'가 결합한 형태이다.
- ⑤ 동사 '핀다'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이 붙어서 '핀다'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형용사 '아름답다'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을 붙이면 문법에 어긋난다.

04 높임 표현의 구분 핵심 개념 22

보기

우리말에서 문장의 주어(주체)가 화자보다 상위자이면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높이고, 청자가 화자보다 상위자이면 높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높인다.
주체 높임의 방법
 상대 높임의 방법(높임 : 하십시오체, 하오체, 해오체 / 낮춤 : 하계체, 해라체, 해체)

문장 표현의 사례		화자와 주체의 관계	화자와 청자의 관계
	⇒	화자<주체	화자<청자
㉠	⇒	화자>주체	화자≥청자
	⇒	화자>주체	화자<청자
㉡	⇒	화자<주체	화자≥청자

[정답해설] • ㉠ : ‘사촌 동생이 나보다 키가 크다.’는 화자인 ‘나’가 문장의 주체인 ‘사촌 동생’보다 상위자이고(화자>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화자가 청자보다 같거나 높은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화자≥청자).
 • ㉡ : ‘외삼촌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는 화자인 ‘나’가 문장의 주체인 ‘외삼촌’보다 하위자이고(화자<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화자가 청자보다 같거나 높은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화자≥청자).

오답 풀이

‘문장 표현의 사례’의 첫째 칸에는 ‘외삼촌께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가, 셋째 칸에는 ‘사촌 동생이 저보다 키가 큼니다.’가 올 수 있다.

[정답해설] 두음 법칙은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으로 ‘ㄷ, ㅌ, ㄷ, ㅌ, ㅌ, ㅌ’ 앞의 ‘ㄹ’과 ‘ㄴ’이 ‘ㅇ’이 되고, ‘ㄷ, ㅌ, ㅌ, ㅌ, ㅌ, ㅌ’ 앞의 ‘ㄹ’이 ‘ㄴ’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가)의 ‘니세시니’가 (나)에서는 ‘니어시니’로 표기된 것으로 볼 때, ‘ㄷ’ 모음 앞에서 여전히 ‘ㄴ’이 쓰이고 있으므로 (나) 시기에 두음 법칙이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가)에서는 ‘ㄴ음룰’, ‘ㄷ룰’과 같이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는 연철의 방식으로 표기하고, (나)에서는 ‘ㄴ음룰’, ‘ㄷ룰’처럼 거듭 적는 혼철의 방식도 사용하고 있다.
- (가)의 ‘무수물’, ‘니세시니’가 (나)에서는 ‘무우물’, ‘니어시니’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ㅇ’이 소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가)의 ‘나·라히’, ‘되·과’가 (나)에서는 ‘나라히’, ‘되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근대 국어에서는 성조를 나타내는 방점이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 (가)의 ‘슬후니’에서는 음성 모음인 ‘ㅡ’와 ‘ㅜ’가 어울려 쓰이나, (나)에서는 ‘슬호니’로 쓰여 음성 모음인 ‘ㅡ’와 양성 모음인 ‘ㅜ’가 함께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근대 국어로 넘어가면서 모음 조화 현상이 혼란스러워졌음을 알 수 있다.

05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특징 비교 핵심 개념 35, 36

보기

(가) 나^{방점 사용}라히破亡(파망)히·니 :되·과^{방점 사용} ㅌ 림 썬잇·고·갓·앗보·미·플·와나모 :썬기·팻도·다時節(시절)·을感嘆(감탄)·호니고·지·^{‘ㅅ’ 사용}늬·므^{‘ㅅ’ 사용}틀썬·리게·코여·희여·슈물슬후니 :새^{‘ㅅ’ 사용}ㅌ^{‘ㅅ’ 사용}물 :늬·래노·다^{연철의 표기 방식}烽火(봉화) | :석·드^{음성 모음 ‘ㅡ’}롤니^{음성 모음 ‘ㅜ’}·에시·니지·빋^{모음 조화가 지켜짐}ㅍ書(음서)·는萬金(만금)·이·스도·다 :첸머·리롤글·구니·쑤며르·니 :다빈혀·롤이·괴디 :몬홀·듯·호도·다

— 「준망」, 『두시언해(杜詩諺解)』 초간본(1481)

(나) 나라히破亡(파망)히니되과 ㅌ 림썬잇고갓앗보미플와나모썬기팻도다時節(시절)을感嘆(감탄)호니고지^{‘ㅅ’ 소실}늬물^{혼철의 표기 방식}틀썬리게코여희여슈물슬호니새^{‘ㅅ’ 소실}ㅌ^{‘ㅅ’ 소실}물^{‘ㅅ’ 소실}래노다^{음성 모음 ‘ㅡ’}烽火(봉화) | 석^{음성 모음 ‘ㅜ’}돌^{양성 모음 ‘ㅜ’}니여시니지^{모음 조화의 혼란}빋^{모음 조화의 혼란}ㅍ書(음서)는萬金(만금)이스도다첸머리롤글구니쑤며르니다빈혀롤이괴디몬홀듯호도다

— 「준망」, 『두시언해(杜詩諺解)』 중간본(1632)

메모

메모